

그림으로 보는
구약성경

어린이 꿈터 바이블

WONDERFUL STORY



BACH Bible All Children's Hands - Wonderful Story Book.

Copyright© 2012 by **BACH**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 recording, or any other -
except for brief quotation in printed reviews, without the prior permission of the publisher.

This is Wonderful Story Book to be made for Vietnamese Children.
I appreciate all the people who help to publish the book.

당신께 드립니다 ...



어린이 꿈터 바탕화면

그림으로 보는 구약성경



1.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11
창세기 1~2장
2. 슬프고도 나쁜 일 17
창세기 3장
3. 노아가 큰 배를 만들었어요 23
창세기 6~7장
4. 하나님께 예배 드린 노아 29
창세기 8장
5.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 35
창세기 22장
6. 하늘로 뻗은 사다리를 본 야곱 41
창세기 27~28장
7. 요셉을 돌봐주신 하나님 47
창세기 37~41장

어린이 꿈터 바탕화면

그림으로 보는 구약성경



8. 형제들을 용서한 요셉 54
창세기 42~45장
9. 용감한 소녀 미리암 59
출애굽기 2장
10. 모세와 불타는 떨기 나무 65
출애굽기 2~4장
11. “안도!”라고 말하는 왕 71
출애굽기 5~12장
12. 이집트에서 나오기 77
출애굽기 13~15장
13. 하늘에서 내린 음식 83
출애굽기 15~16장
14. 하나님의 좋은 규칙들 89
출애굽기 19~20장





어린이 꿈터 바비블

그림으로 보는 구약성경



15. 금 송아지와 이스라엘 사람들 95
출애굽기 32장
16.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 101
민수기 21장
17. “와르르르!” 여리고의 성벽 여호수아 107
여호수아 6장
18. 하나님의 천하장사 삼손 113
사사기 13~16장
19. 나오미를 따라간 룻 119
룻기 1~4장
20.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125
사무엘상 1~2장
21. 용감한 소년 다윗 131
사무엘상 17장

어린이 꿈터 바이블

그림으로 보는 구약성경

22. 좋은 친구들 다윗과 요나단 137

사무엘상 18장

23. 솔로몬왕의 지혜로운 재판 143

열왕기상 3장

24.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집 149

열왕기상 5~8장

25.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155

열왕기상 17장

26. 엘리야가 도와 준 가족 161

열왕기상 17장

27. 엘리사자를 위해 만든 방 167

열왕기하 4장

28. 하나님을 만난 나아만 173

열왕기하 5장



어린이 꿈터 바탕화면

그림으로 보는 신약성경



29.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 181
빌레몬서
30.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187
빌립보서.히브리서
31. 예수님을 멀리멀리 전해요 191
디모데전서.디도서
32. 예수님을 전한 베드로의 편지 195
베드로전.후서
33. 바울의 마지막 편지 197
디모데후서
34. 요한이 쓴 사랑의 편지 199
요한 일.이.남서
35. 밧모섬에 있던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201
요한계시록
36. 요한이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204
요한계시록



그림으로 보는
구약성경

Old Testament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 레위기 19장 2절 –

처음 약속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

- 출애굽기 14장 22절 -

1.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 | 1-2장

아주 먼 옛날에는 세상이 없었어요.
해가 없었어요.
달도 없었어요.
별들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해를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해를 만드셨어요.
해는 하루 종일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지요.



“달을 만들어야지.”
달은 밤에도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지요.



“별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별만이 아니라, 파닥파닥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하늘하늘 흔들리는 풀들,
그리고 훨훨 날아다니는 하늘의 새들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동물들도 만드셨어요.
들판을 뛰어다니는 야생동물도, 집에서 키우는 여러 동물들뿐만 아니라
꼬물꼬물 기어 다니는 벌레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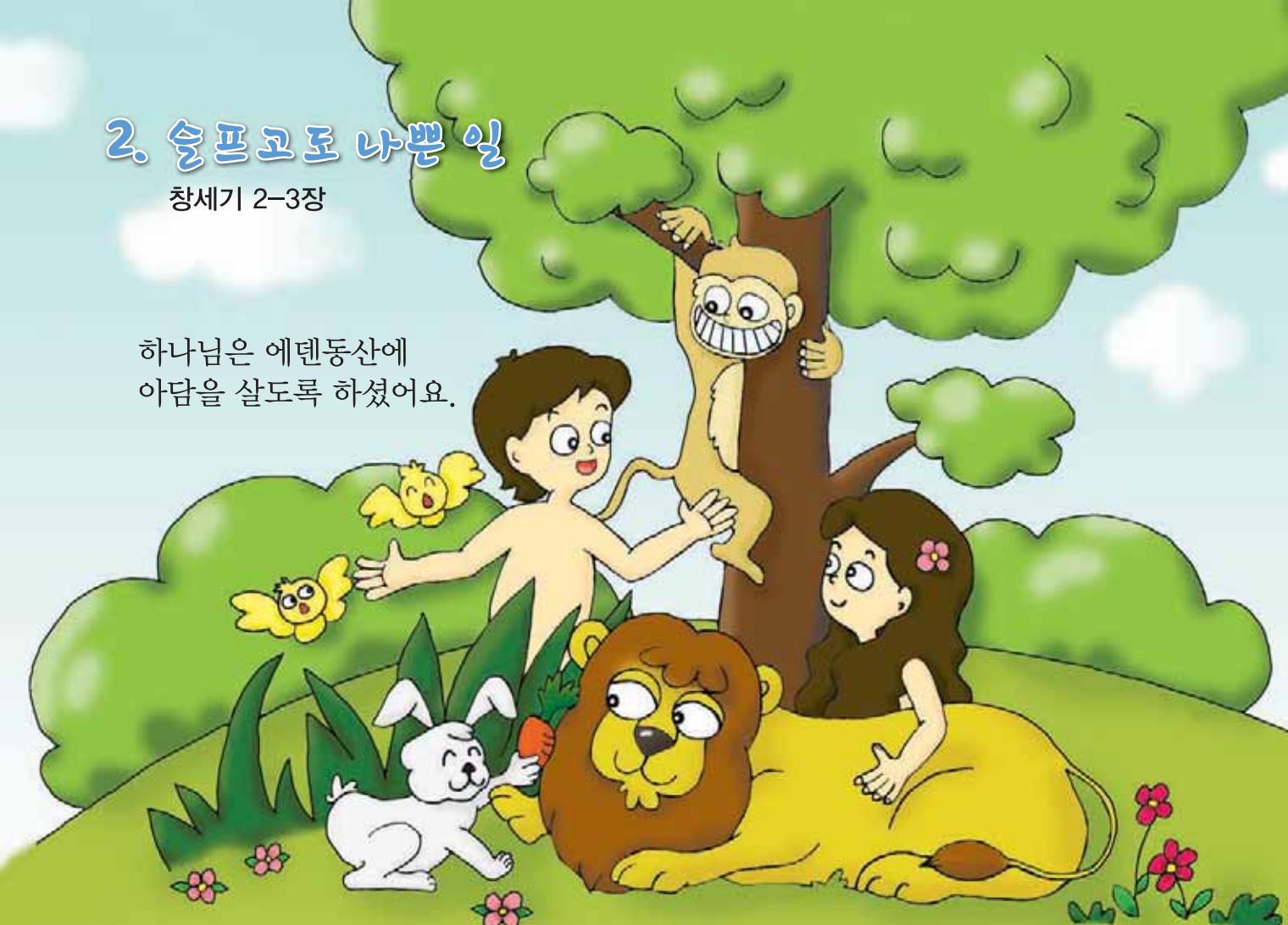


하나님은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아하셨어요.
옛새 동안 세상을 이루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행복하게 쉬셨어요.

2. 술프고도 나쁜 일

창세기 2-3장

하나님은 에덴동산에
아담을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혼자 지내는 아담을 보시고 ‘좋은 친구를 만들어 주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아내 하와를 만드셨지요.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너희들의 것이지만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지지도, 쳐다 보아서도 안 된단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어느 날 동산에 혼자 걷고 있던
하와에게 거짓말쟁이 뱀이 다가왔어요.

“하와! 이 과일을 좀 봐.
유난히 먹음직스럽지 않아?”

하와가 대답했어요.

“안돼! 그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뱀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처럼 똑똑해 질까 봐 그러신 거야.

잘 들어. 하와! 이 열매는 너를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 줄 거야!”

순간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그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하와는 자기뿐 아니라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될까봐 두려워 숨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벌을 내리셨어요.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슬프지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걸 그랬어요.”
서로서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3. 노아가 큰 배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6-7장

긴 세월이 흘러서 땅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짓을 마구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슬프셨어요.

“세상을 물로 벌을 주어야겠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어요.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친구, 노아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큰 배를 만들어라.”





노아와 여덟 명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랫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덮으실 거예요.”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비웃기만 했어요.

“저 바보 좀 봐!
산 위에 배를 만들다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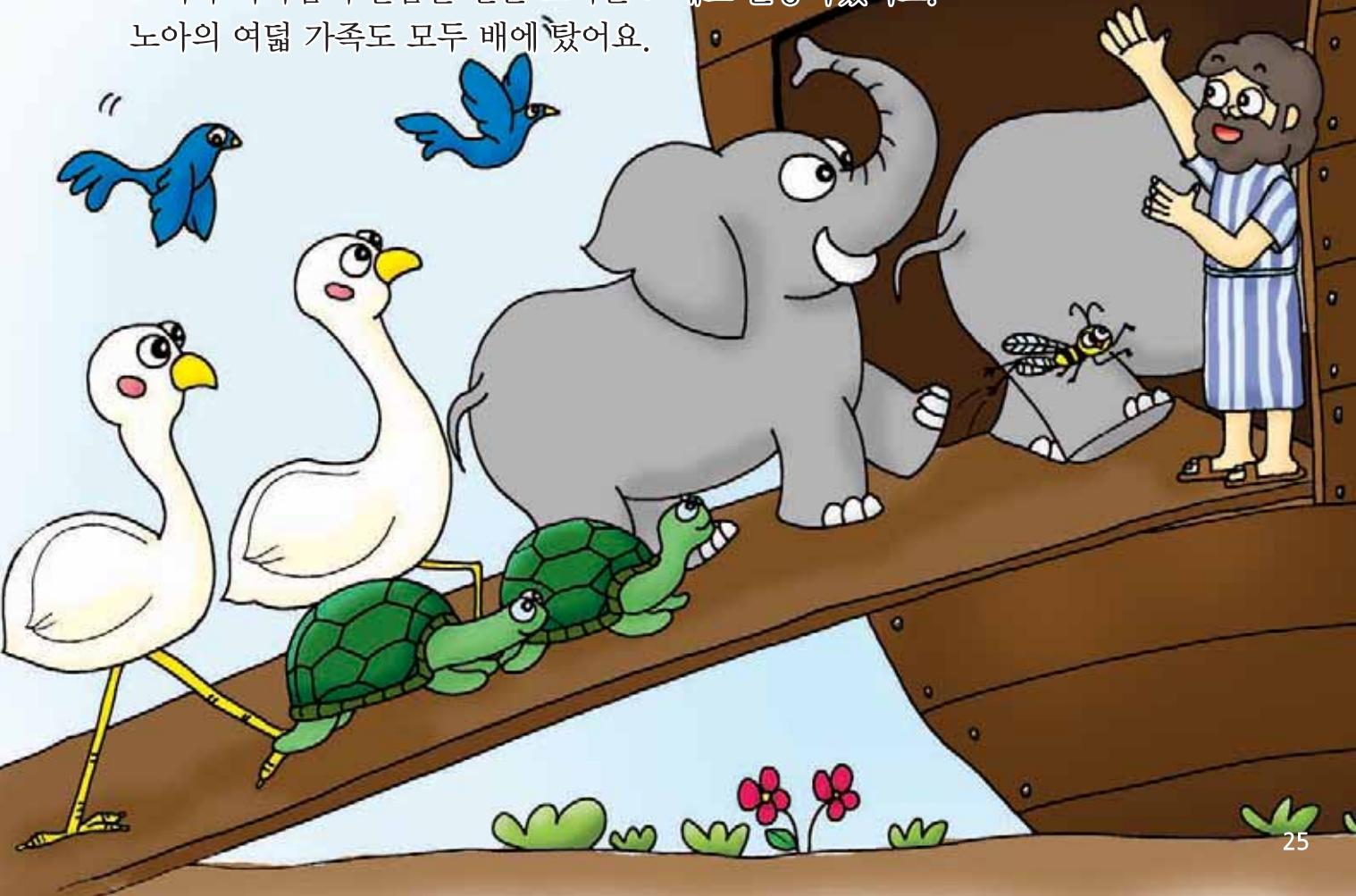
드디어 배가 완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이 모두 노아가 만든 배에 타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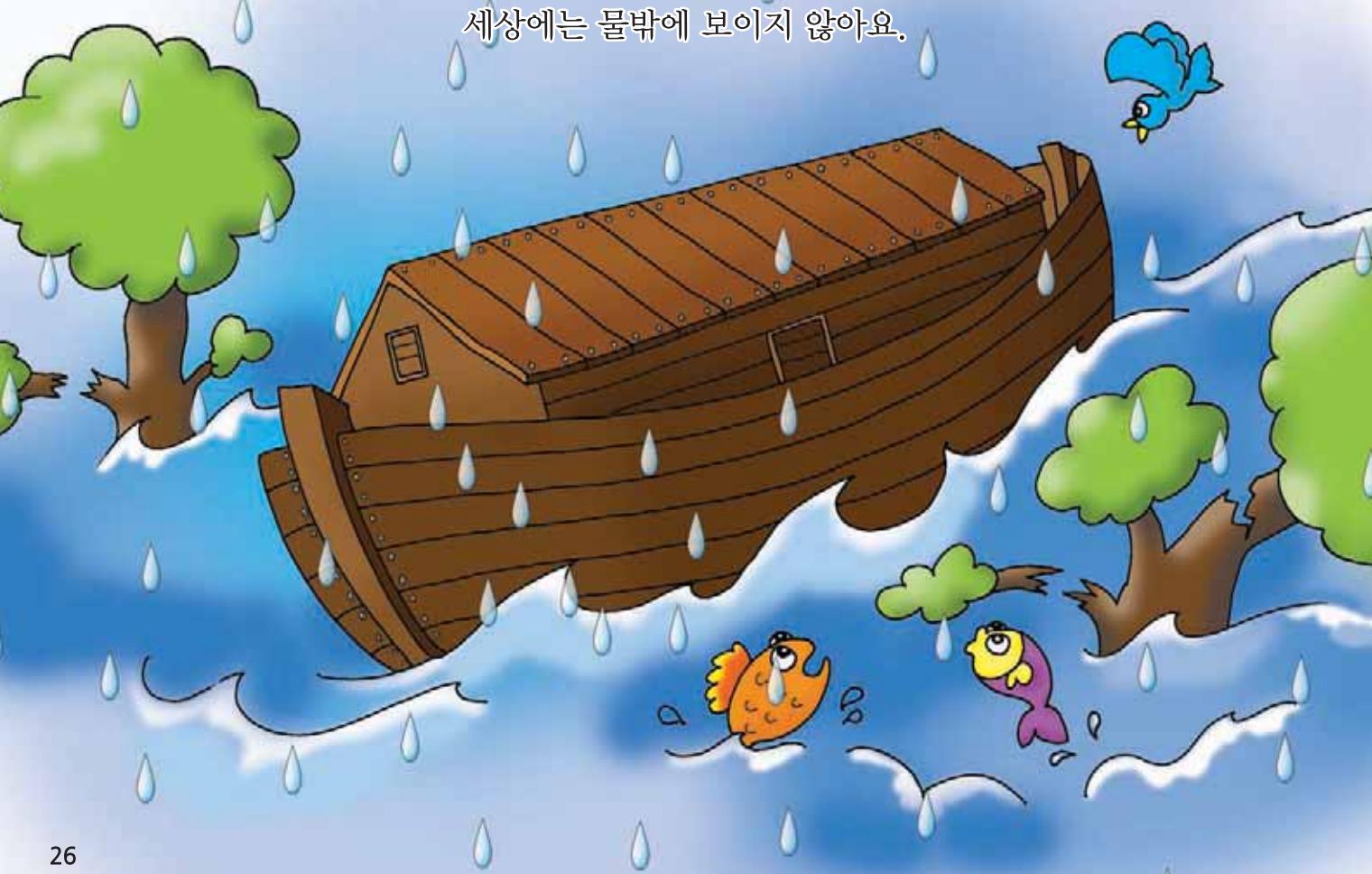
아직 하늘엔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노아는 그대로 순종하였어요.

노아의 여덟 가족도 모두 배에 탔어요.



하나님은 큰 배의 문을 닫으셨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계속 계속 비가 왔어요.
세상에는 물밖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는 집도, 산도, 나무도 없고 물과 하늘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쁘게 살던 사람들도 모두 물에 덮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비가 왔을까요? 40일 동안 비가 멈추지 않았어요.

빗방울은 웅덩이가 되고, 웅덩이는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강이 되도록 비가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매일 매일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냈어요.



4. 하나님께 예배드린 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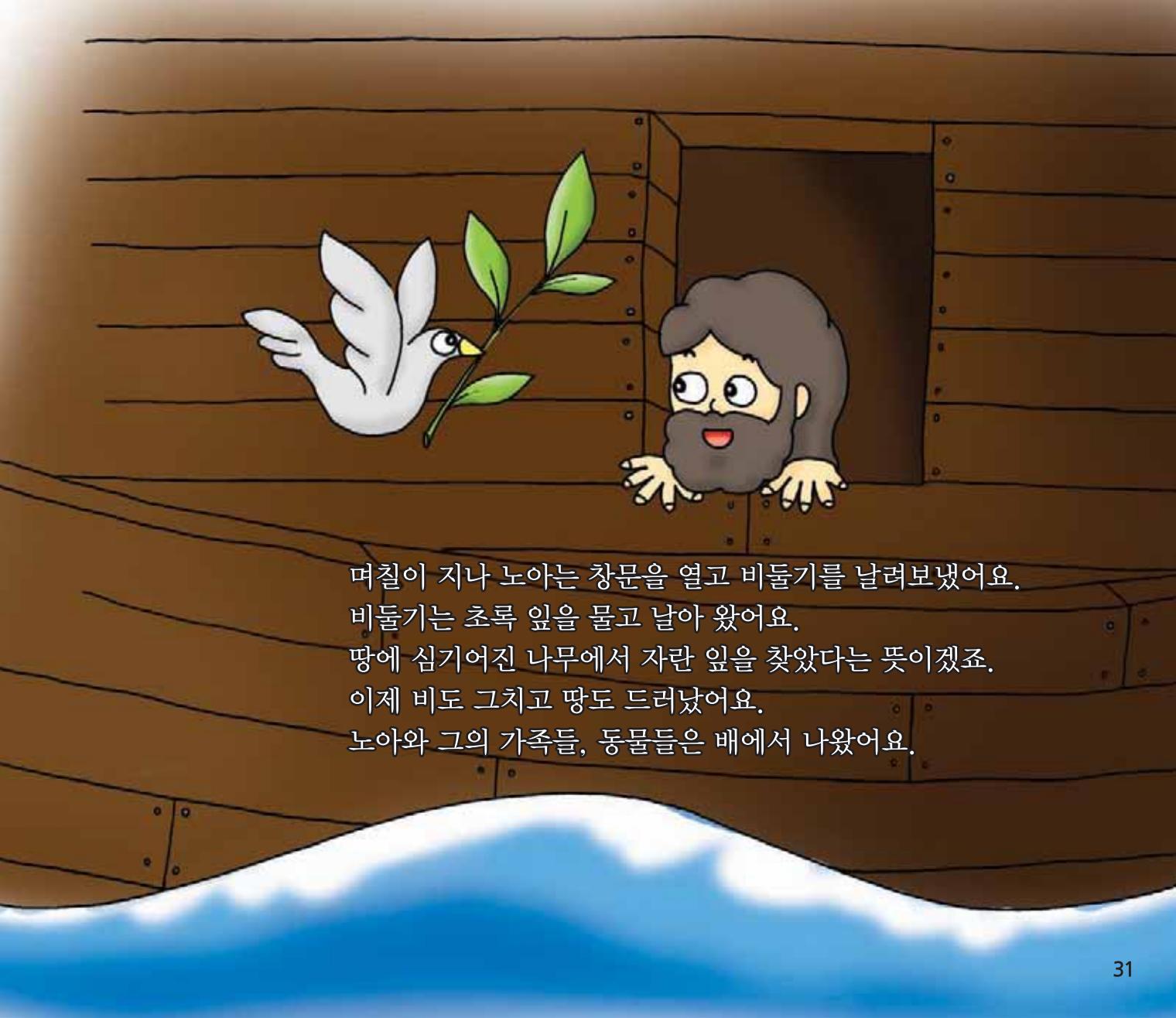
창세기 8장



세상은 150일 동안 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나쁜 일들과 나쁜 사람들을 모두 덮었어요.
세상에는 노아의 배만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답니다.





며칠이 지나 노아는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비둘기는 초록 잎을 물고 날아 왔어요.
땅에 심기어진 나무에서 자란 잎을 찾았다는 뜻이겠죠.
이제 비도 그치고 땅도 드러났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동물들은 배에서 나왔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노아는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동물들까지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마른 땅을 밟을 때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노아와 가족들은 돌더미를 쌓고 불을 피워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은 일곱가지 빛으로 만들어진 무지개를 만들어 하늘에 펼쳐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동물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행복했어요.

5.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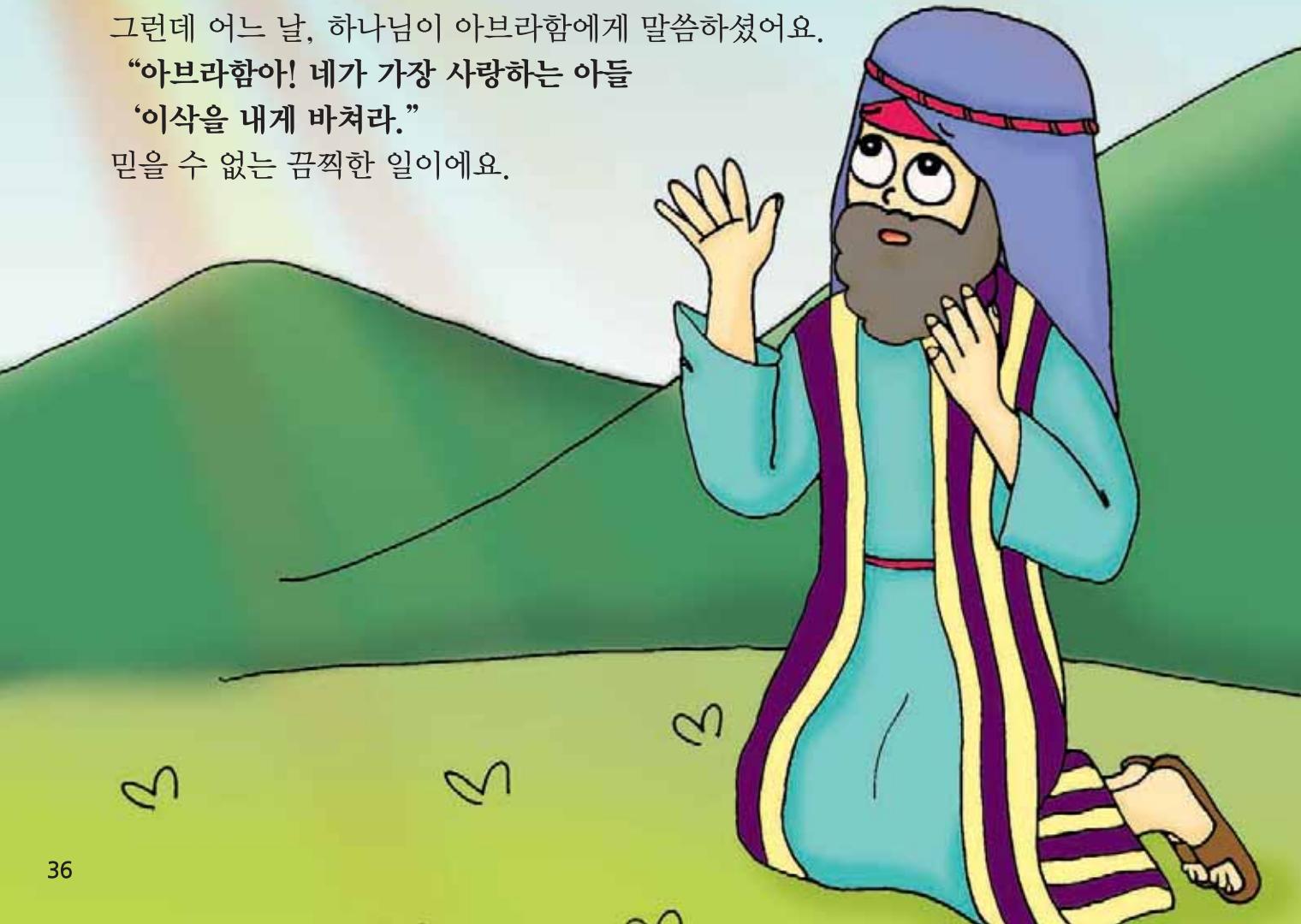
노아의 홍수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세상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지요.
갈대아 우르 땅에 살던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으로 떠나거라.
나의 말을 믿고 따르는 너에게
내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만 웃고 말았어요.
“나는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러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주신 아들에게 ‘웃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삭은 씩씩하게 자랐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면
아들 ‘이삭’ 을 죽여야만 해요.
아브라함은 너무 슬펐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서
불에 태워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면
이삭을 죽여야 하는데 어쩌죠?
아들 이삭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새벽,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산으로 떠났어요.



아버지와 함께 이삭은 커다란 돌을 옮겨
하나님께 예배할 단을 쌓고 나무를 펴놓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묶어 단위에 올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이삭도 가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이대로 죽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향해
들고 있던 칼을 높이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그만!” 하나님은 다급히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제는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수풀 속에 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또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삭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6. 하늘로 뻗은 사다리를 본 야곱

창세기 27-28장

야곱은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큰형이 되기 위해

아버지와 형에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몹시 화가 난 아버지와 형을 피해

엄마 말씀대로 집에서 나와 멀리 가는 중이랍니다.



A colorful illustration of a young boy with brown hair sleeping peacefully. He is lying on his side, facing left, with his head resting on a large grey rock. He is wearing a green long-sleeved shirt and blue pants. To his left is a large brown tree trunk, and behind him are green hills under a light blue sky.

야곱은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어요.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질 만큼이나 걸었어요.
얼마나 멀어졌을까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어요.
그제서야 멈추어 섰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야곱은 아주 멋진 꿈을 꾸었어요.
꿈 속에서 커다란 사다리를 보았어요.
그 사다리는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다리 맨 꼭대기에 서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같이 갈게. 내가 너를 도와줄께.”



야곱이 꿈에서 깨어났어요.

일어나 앉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야곱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가실 거야.”

야곱은 기뻤어요.

그래서 곧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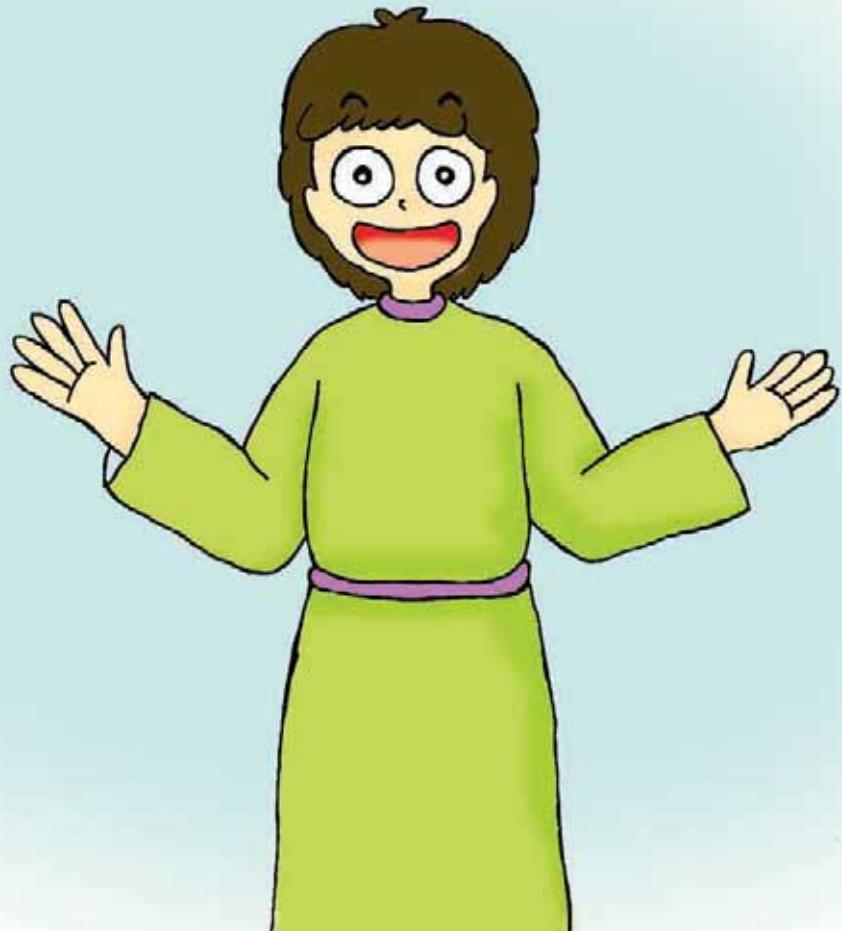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호!” 야곱은 신이 났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길 원했거든요. 하나님이 돌봐 주시기를 바랐거든요.

이제 야곱은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의 모든 소원을 이뤄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7. 요셉을 돌봐주신 하나님

창세기 37-41장



아버지 야곱은 12명의 형제 중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좋은 옷이 생겨도, 맛있는 것이 생겨도 요셉에게만 주었지요.

어느 날 요셉은 형들보다 큰 힘으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에 대해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랑했어요.

그러자 다른 형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했어요.

어느 날 한 형이 말했어요. “요셉을 죽여버려!”

또 다른 형이 말했어요. “아니야. 죽도록 일만하게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형들은 마침 장사하러 지나가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이제 요셉은 멀리 이집트에서 종이 되었어요.



이집트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 오게 된 요셉은 열심히 일했어요.
비록 보잘 것 없는 종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돌보아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쁜 일이 생겼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말만 믿고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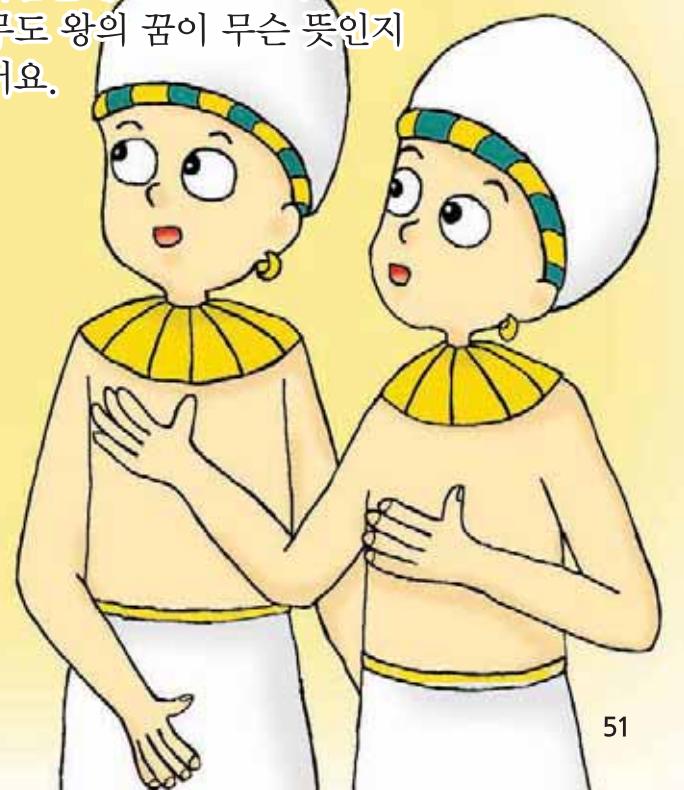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함께 갇혀있던 왕의 신하였던
두 사람이 꾼 꿈의 뜻을 풀이해 주었어요.
며칠이 지나 두 신하가 꾼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느 날 밤, 이집트의 왕이 한 꿈을 꾸었어요.
살찐 일곱 마리 소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마른 소들이 갑자기 나타나 잡아 먹어 버렸어요.
또 두 번째 꿈에서는 일곱 개의 잘 익은 곡식단을
마른 곡식단이 나타나 모두 먹어치워 버린
꿈이었어요.

“과연 이 꿈이 무슨 뜻일까?”
왕이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왕의 꿈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 때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던 신하가
요셉을 생각해 냈어요.

“요셉이라면 풀어드릴 수 있어요.”
라고 요셉을 소개했어요.
왕은 요셉을 불러왔어요.

“꿈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말했어요.
“7년 동안 곡식과 열매가 많이 열리는
풍년이 들겠으며, 그 다음 7년은 아무 곡식도 열리지
않는 지금까지 본적이 없는 흉년이 들어
모두가 굶어 죽게 된다는 꿈이에요.
풍년이 들 때 흉년을 준비하셔야 해요.”
왕은 매우 기뻤어요.

요셉이 갖고 있는 지혜에
왕은 깜짝 놀랐어요.
기뻐하며 왕이 말했어요.
“너는 지혜롭구나.
네가 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겠다.”
왕은 요셉을 제일 높은
이집트의 총리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돌보셨습니다.”
요셉이 말했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계신답니다.



8. 형제들을 용서한 요셉

창세기 42-45장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나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돌보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왕의 꿈을 풀어 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모든 백성 위에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주었어요.

요셉의 말대로 7년 동안 곡식과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풍년이 들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곡식을 잘 저축해 두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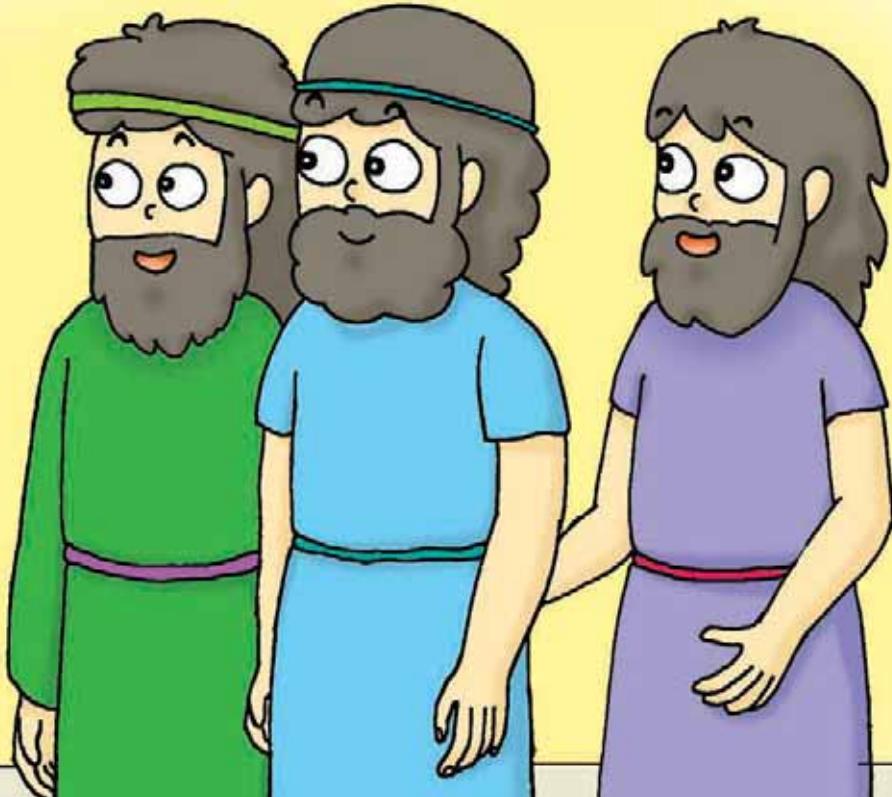
곧 7년이 지나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흉년이 왔어요.

이집트에는 요셉 덕분에 곡식이 많았지만, 형들이 사는 곳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형들은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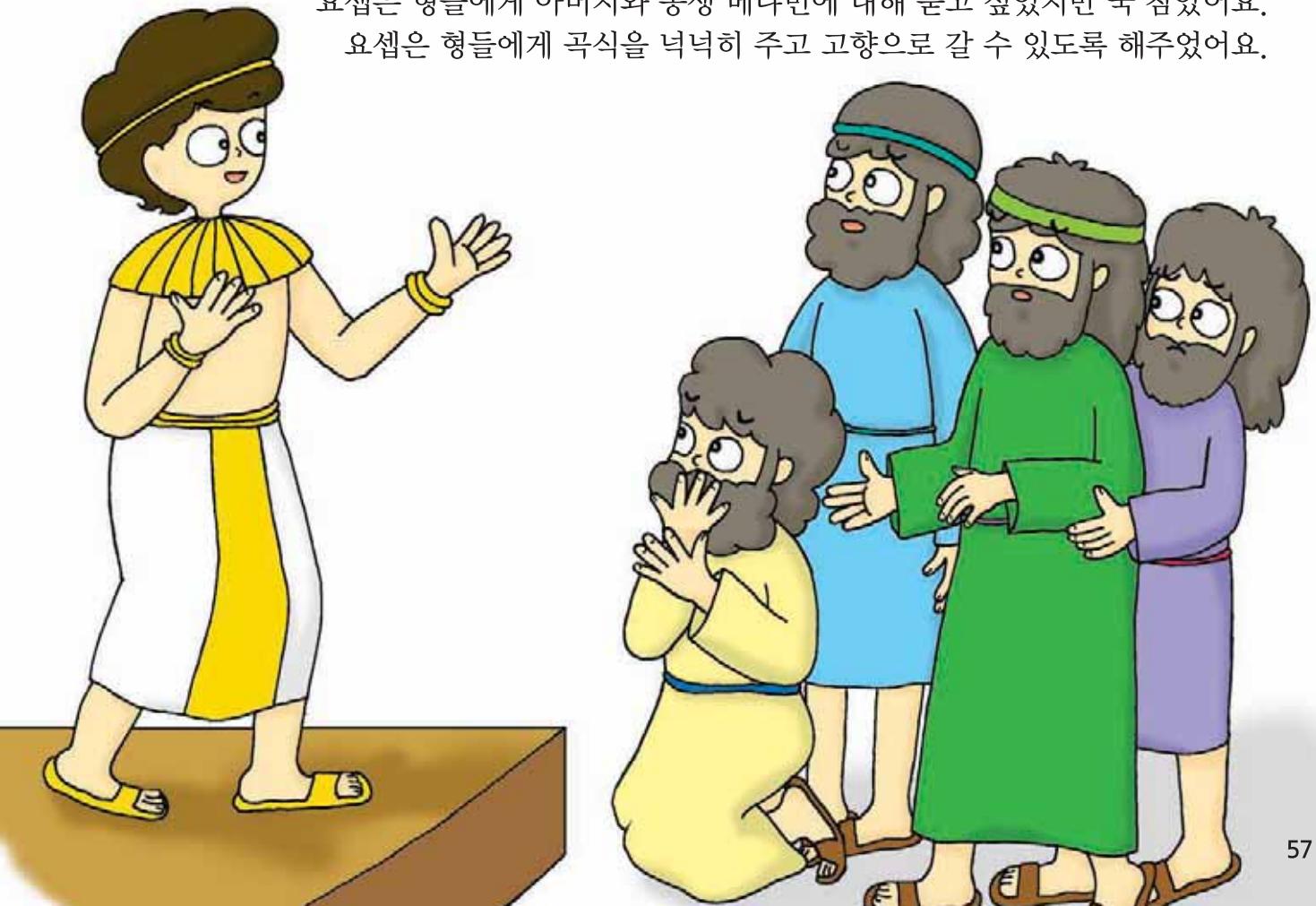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은 왕궁에 있는 총리를 만났어요.
하지만 형들은 이집트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고 싶어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너희는 우리나라에 곡식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러 온 첩자로구나.”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형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들은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형들이 아직도 서로를 미워하는지 알고 싶었던 요셉이 말했어요.
“다음 번에 곡식을 사려면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막내 동생을 데려오시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잃지 않기 위해 서로 돋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넉넉히 주고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곡식을 또 사러 온 형들은 아직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이에요.” 형들은 무서웠어요.

요셉이 자기들을 혼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달랐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형들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 저를 먼저 이곳, 이집트로 보내셨어요.
우리 이곳에서 살아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9. 용감한 소녀 미리암

출애굽기 2장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소녀예요.
미리암네 집은
이집트에서 살고 있어요.
이집트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응애, 응애.”
엄마는 미리암의 사랑스러운
남자 동생을 낳았어요.
엄마는 아기를 아무도 모르게
숨겨서 키웠어요.



하지만 점점 아기가 자라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눌하고 강물에 띄워 보냈어요.

“내가 우리 아기와 함께 있을래요.”

미리암이 말했어요.

미리암은 용감한 여자 아이였어요.

미리암은 바구니를 따라서 몰래 쫓아 갔어요.



“응애, 응애!” 아기가 막 울어요. 곧 어떤 여자가 씻으러 강으로 왔어요.

그 여자는 이집트의 공주였어요. “바구니가 있네!”

공주는 바구니 속의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부터 이 귀여운 아기는 내가 키워야겠다.”



공주가 말했어요. “강물에서 건졌으니 이 아이는 모세라고 불러야지.”

‘모세’ 는 ‘강물에서 건진 아이’ 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기를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한데….” 하며 공주는 걱정했지요.

이때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미리암이 재빠르게 공주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미리암이 말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어요.”



“저의 엄마가 아기를 돌볼 수 있어요.” 하고 엄마를 소개했어요.

공주가 허락하자 미리암은 엄마를 데려왔어요.

공주는 아기 엄마에게 부탁했어요. “이 아기를 키워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엄마는 이제 아기를 숨기지 않고 키울 수 있게 되어서 기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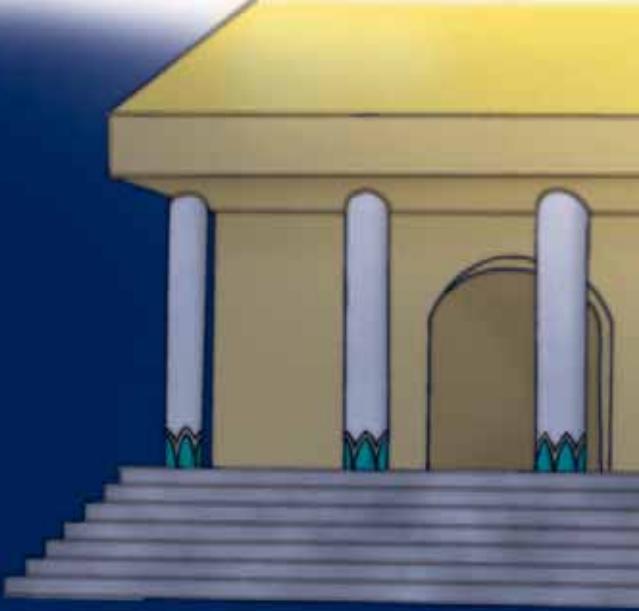
“미리암, 나를 용감하게 도와주어서 고맙구나.”

엄마가 누나 미리암에게 말했어요.



10. 모세와 불타는 떨기 나무

출애굽기 2~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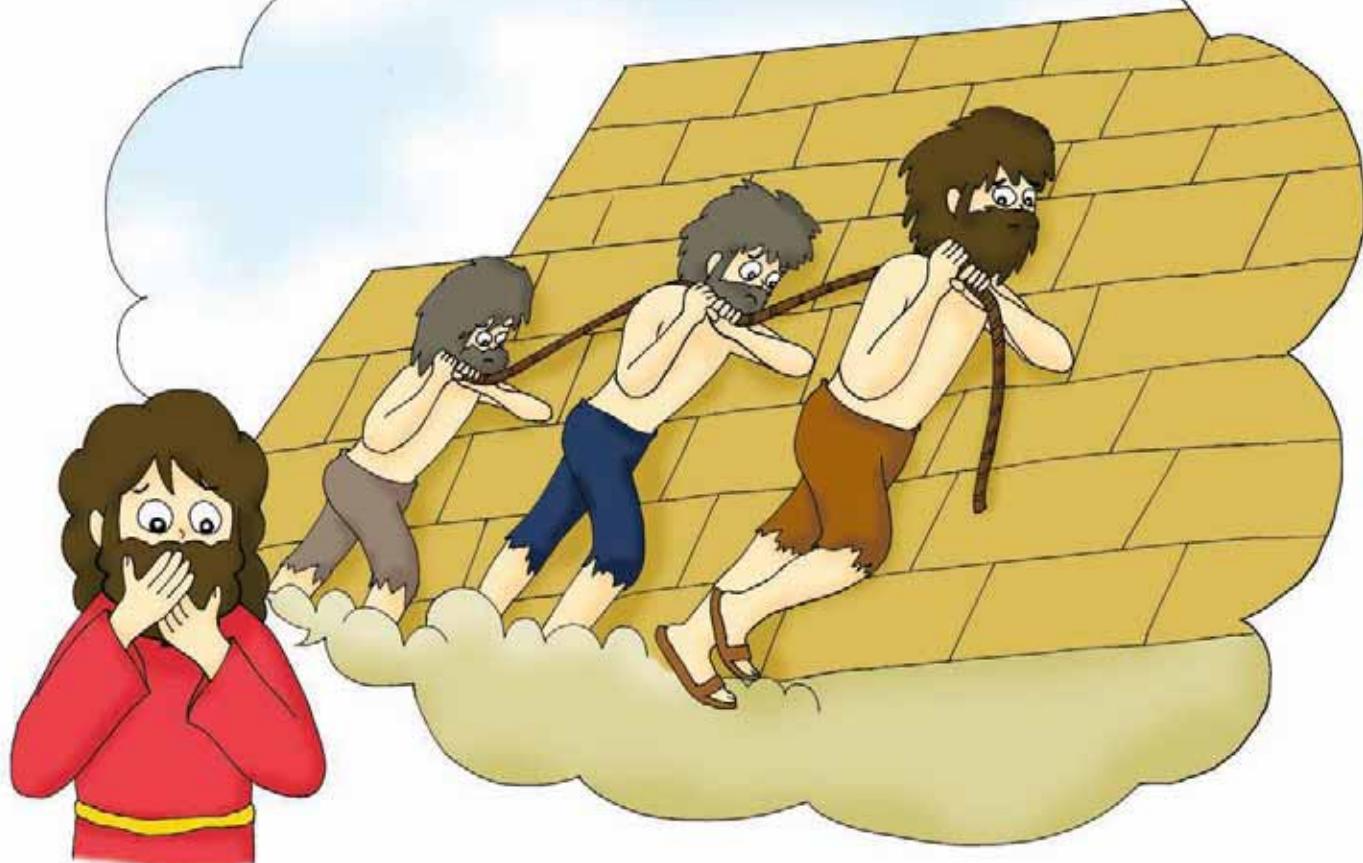
어느덧 모세는 40살의 어른이 되었어요.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어느 날 우연히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는 화가 나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이집트의 왕 바로는 모세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멀리 도망갔어요.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지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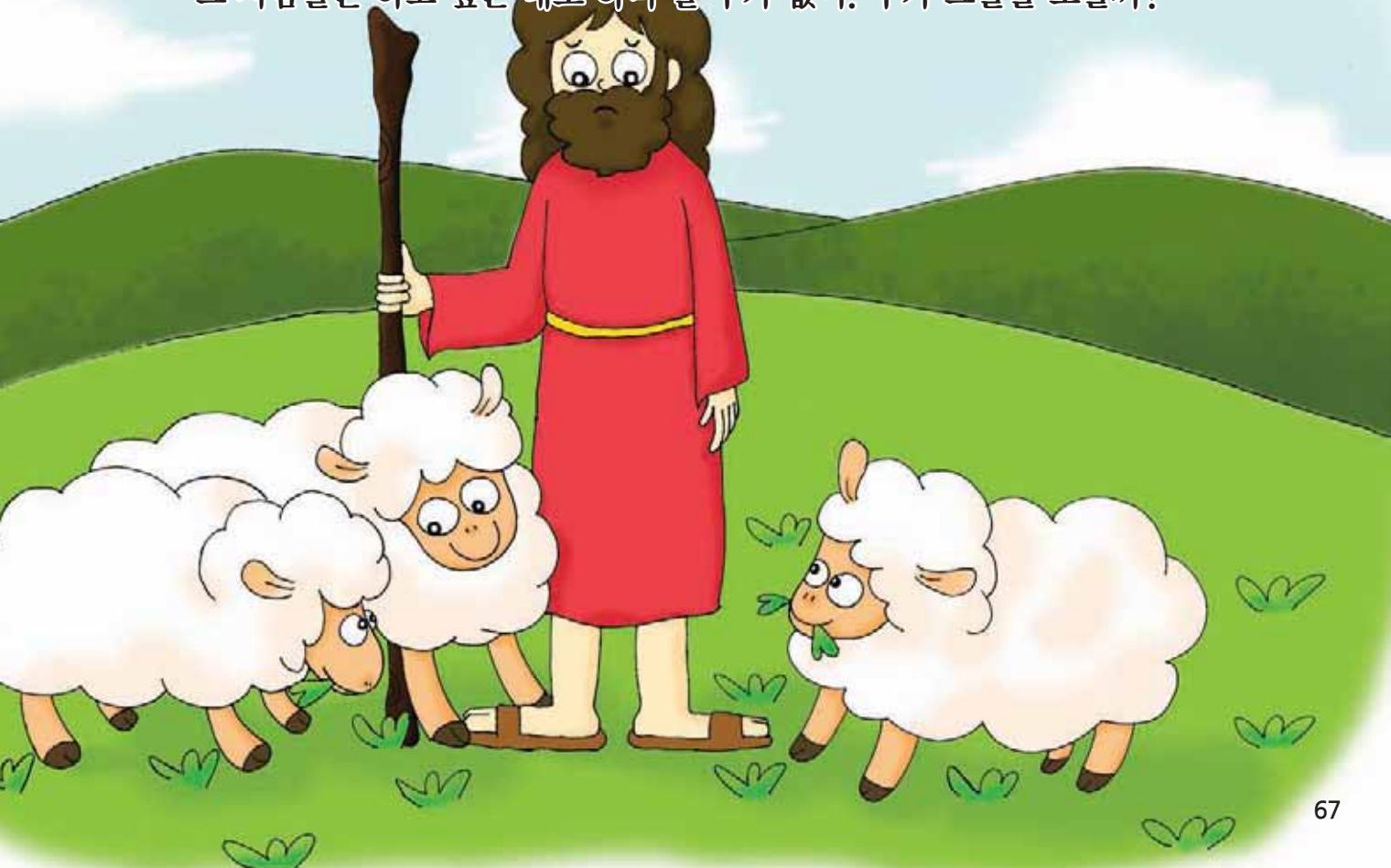
모세는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양떼들을 돌보면서 살았어요.

어느덧 모세는 80살이 되어 버렸어요.

모세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집트에 종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립고 걱정돼서 몹시 슬펐어요.



모세가 자기의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은 슬퍼요.
왜냐하면 멀리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에요.
모세는 혼자서 말했어요. “나의 양떼들은 행복하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집트의 왕을 위해 힘들게 고생해야 해.
그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가 없어. 누가 그들을 도울까?”



오늘도 모세는 양떼를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지만 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떨기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내 백성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이제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모세는 겁이 났어요.
그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 전에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을 보여주시고
씩씩하게 잘 말하는
형 아론도 같이 가라고 해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주신 용기를 갖고
이집트로 갔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대로 행동할거에요.

11. “양돼!”라고 말하는 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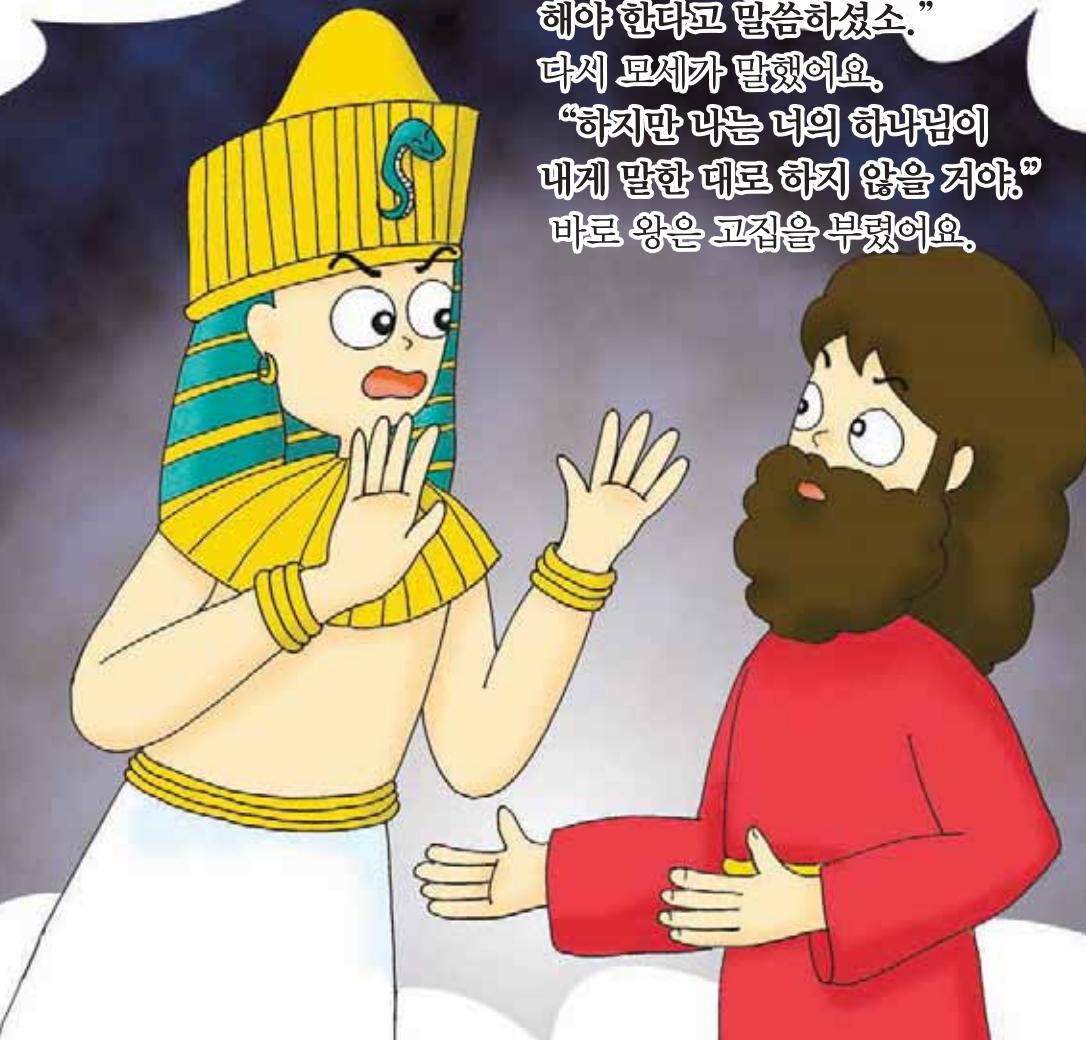
출애굽기 5~12장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시오!”

모세가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금 떠나야 하니
백성을 놓아주시오.”





“안돼!” 바로 왕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소.”

다시 모세가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게 말한 대로 하지 않을 거야.”
바로 왕은 고집을 부렸어요.

바로 왕은 백성들에게 더욱 더 힘든 일을 시켰어요.
백성들은 밥을 먹을 시간조차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왕은 너와 백성들을 더욱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곧 알게 될 것이다.”



몇 번이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시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안돼!!!” 왕이 말했어요.
“너희 백성들은 나를 위해 일해야 해!”



이집트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에서 가장 큰 강이
피로 변했어요.
방과 지붕 위에도 수 많은
개구리들이 뛰어 다녔어요.
갑자기 불어 온 먼지들이
모두 이와 벼룩으로 변했어요.
또 파리 떼가 몰려들었어요.



나쁜 일은 계속 되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의 소와 양들에게 나쁜 병이 걸려서 모두 죽었어요.
날씨도 이상해서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얼마 남지 않은 곡식도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모두 먹어 치웠어요.
더 큰 일은 3일 동안이나 해가 뜨지 않아 깜깜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동안 일어난 아홉 가지의 일이
끝나기도 전에 마지막으로
열 번째 아주 커다란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왕의 아들부터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
모두 죽게 된 일이에요.
이집트의 온 땅에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서야 바로 왕은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을 불렀어요.
“가라!” 왕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버려라!”
왕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왕보다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12. 이집트에서 나오기

출애굽기 13~15장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셨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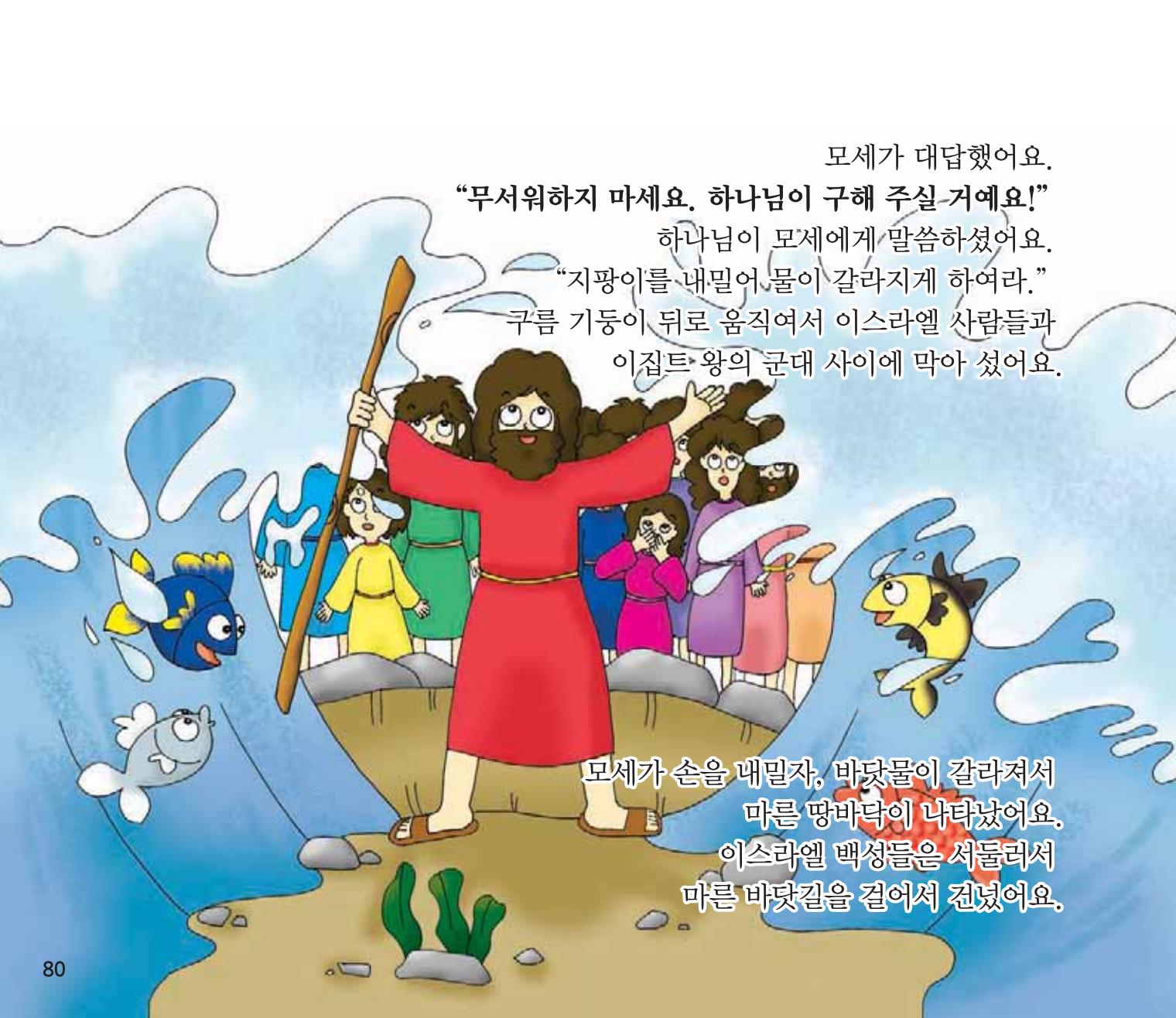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셨어요.
매일 밤, 불로 기둥을 세워 보여주셨어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자,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하게 쫓아갔어요.



큰일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른 곳은
홍해 바다 앞이었어요.
건너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서 갈 수도 없었어요.
바로 왕과 군사들이 쫓아 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에요.

A colorful illustration depicting the parting of the Red Sea. In the center, Moses, dressed in a red tunic and brown sandals, holds his staff aloft and points towards the sky. Behind him, a group of people, including men, women, and children, are walking across a dry path. To the left, a large blue fish swims in the water. On the right, several small, friendly-looking fish swim near the surface. The background is filled with stylized, wavy blue and white clouds.

모세가 대답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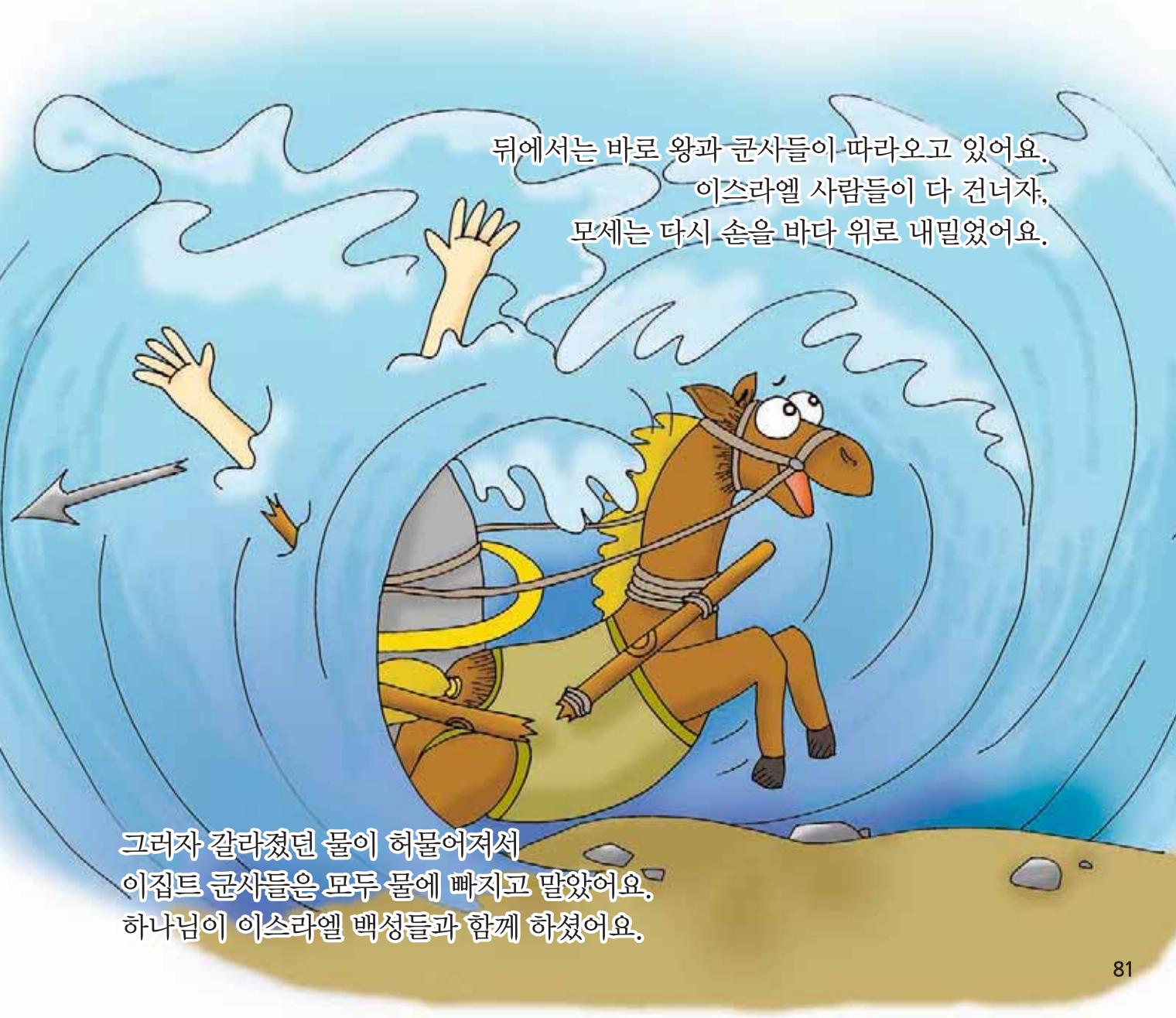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여라.”

쿠름 기둥이 뒤로 움직여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왕의 군대 사이에 막아 섰어요.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바닥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둘러서
마른 바닷길을 걸어서 건넜어요.

A colorful illustration depicting the parting of the Red Sea. In the center, a brown horse and its rider are shown riding away from the viewer towards the right. The horse is harnessed to a cart containing a large grey cylindrical object and a yellow wheel. Above the horse, two hands reach upwards from the water. One hand is positioned higher and appears to be holding a small orange bird. The background consists of stylized blue and white wavy lines representing water. In the upper right corner, there is a speech bubble containing Korean text.

뒤에서는 바로 왕과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자,
모세는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리자 갈라졌던 물이 허물어져서
이집트 군사들은 모두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 바로 왕의 종이 아니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하며 노래했어요.
모두 즐거워하며 북을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13. 하늘에서 내린 음식

출애굽기 15~16장

“목말라요.” 꼬마 여자 아이가 말했어요.

“우리도 목이 마르구나.”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물이 없어. 이제 이집트의 종은 아니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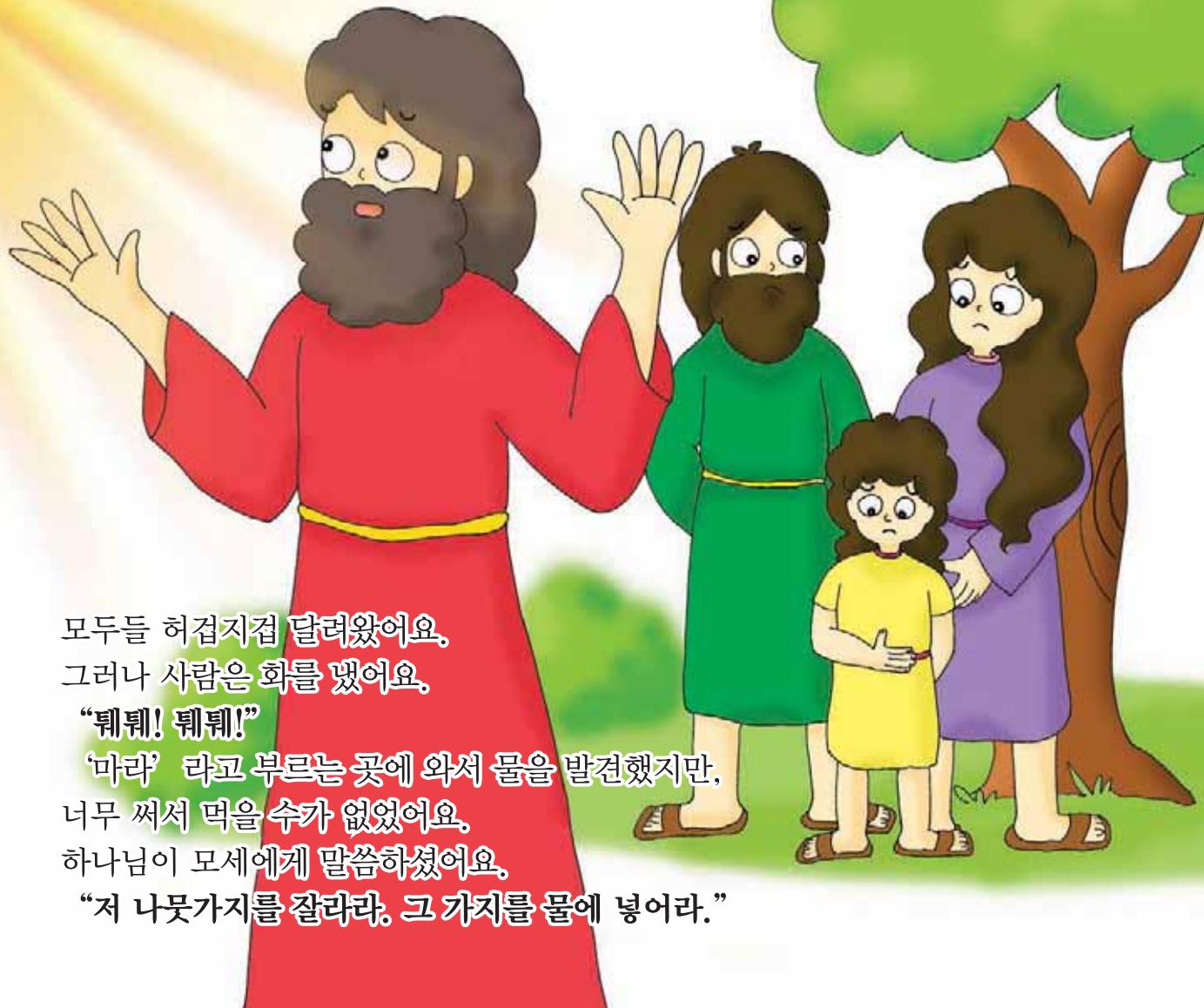
사람들은 오랫동안 물이 없는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목이 말랐어요.

사람들은 모세에게 목이 마르다고 화를 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물이다, 물이야!”
사람들은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모두들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그러나 사람은 화를 냈어요.

“퉤퉤! 퉤툐!”

‘마라’라고 부르는 곳에 와서 물을 발견했지만,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나뭇가지를 잘라라. 그 가지를 물에 넣어라.”

“네,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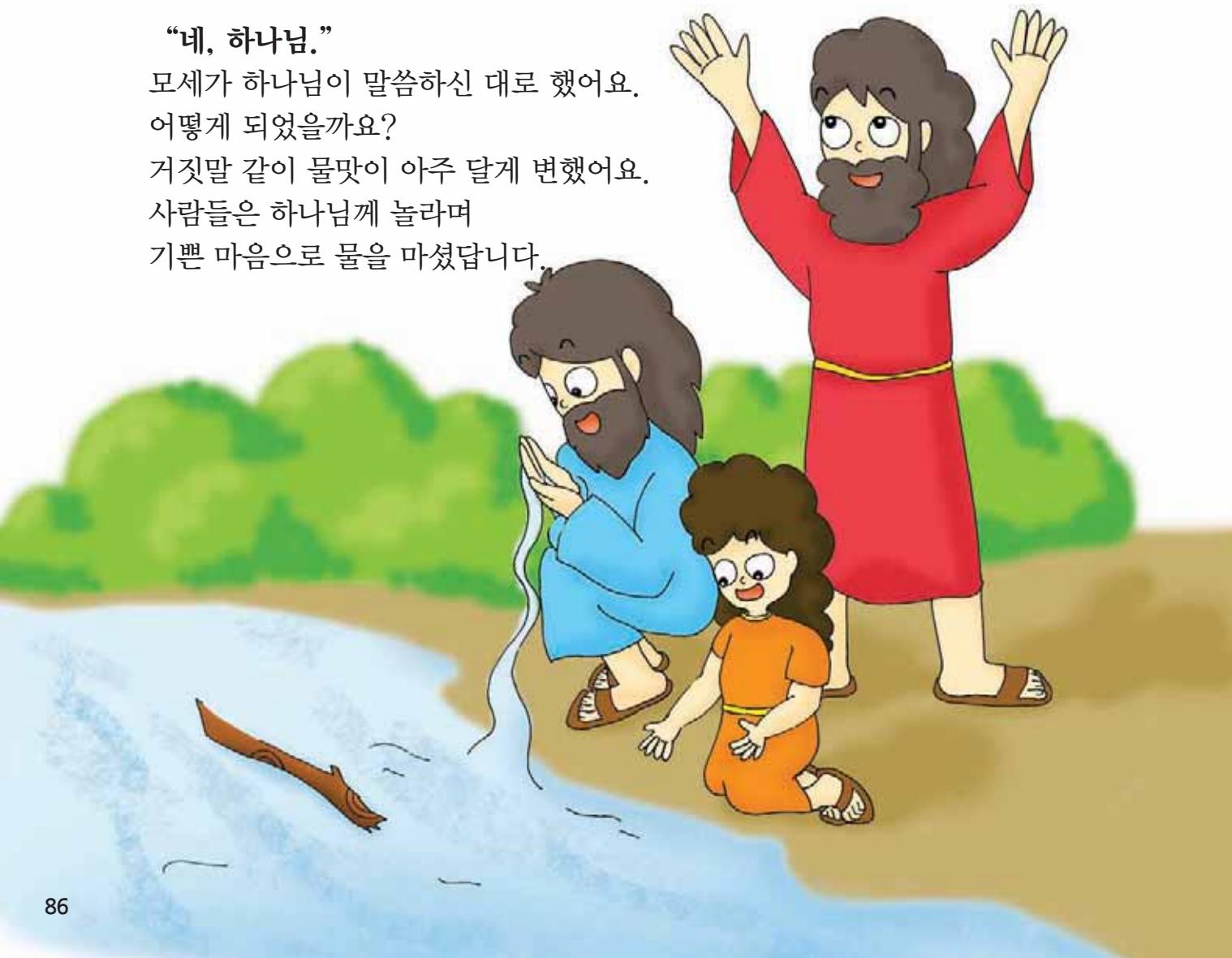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짓말 같이 물맛이 아주 달게 변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놀라며

기쁜 마음으로 물을 마셨답니다.



“배고파요.” 남자 아이가 말했어요.

“우리들도 배가 고프구나.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시 모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잖아요?”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슬같은 것들을 매일 아침마다 내려 주셨어요.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치 꿀을 넣어서 만든 과자 같은 음식을 내려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농사를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먹이셨어요.
또 발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셨어요.



14. 하나님의 좋은 규칙들

출애굽기 19~2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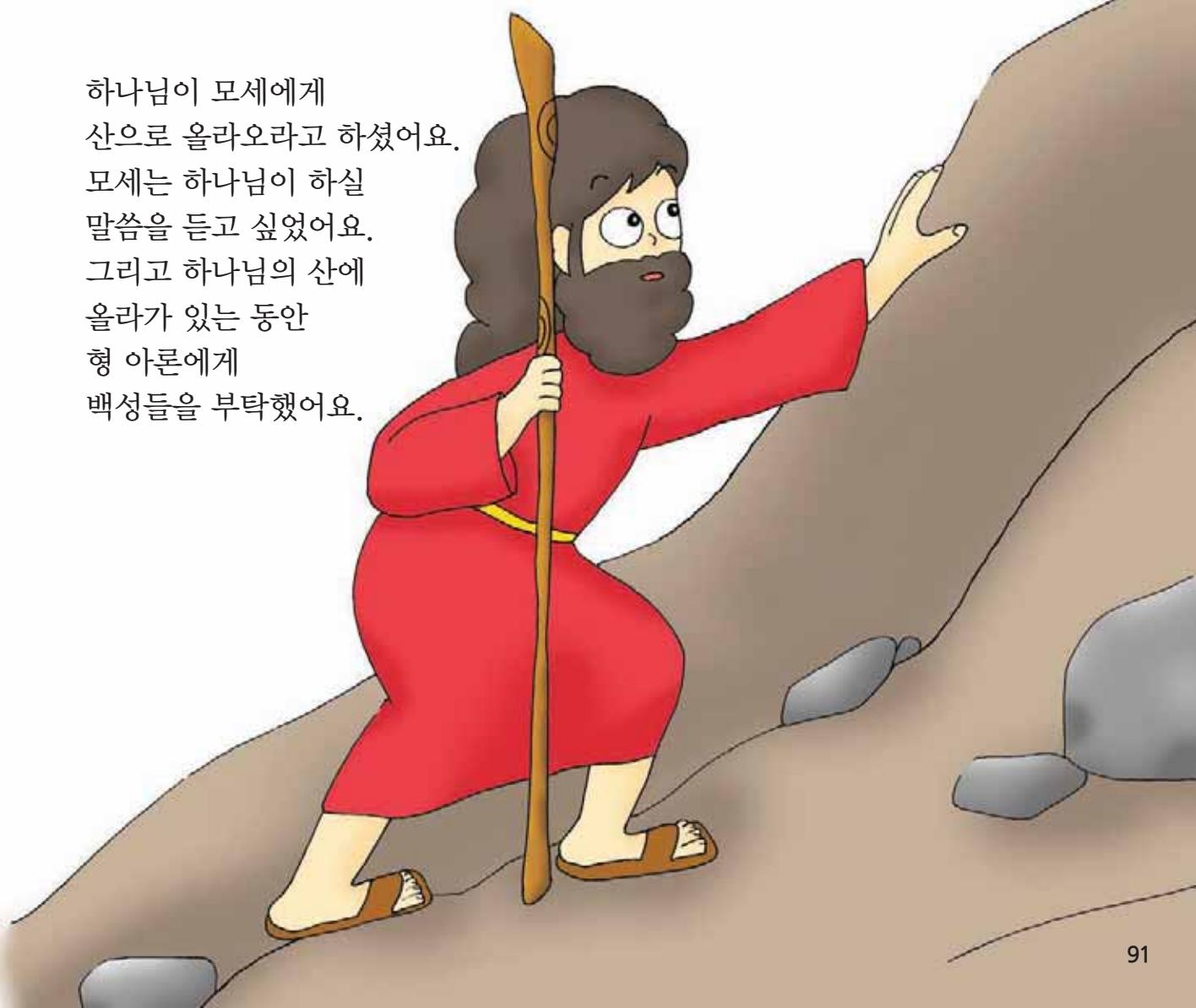
“이게 무슨 소리지?”
사람들이 물어보네요.
“천둥 소리야!”
누가 대답했어요.
“번개인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커다란 시내산 가까이 왔어요.
산에서 번개와 천둥 소리가 들리자 모두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모세가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들을 잘 이끌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형 아론에게
백성들을 부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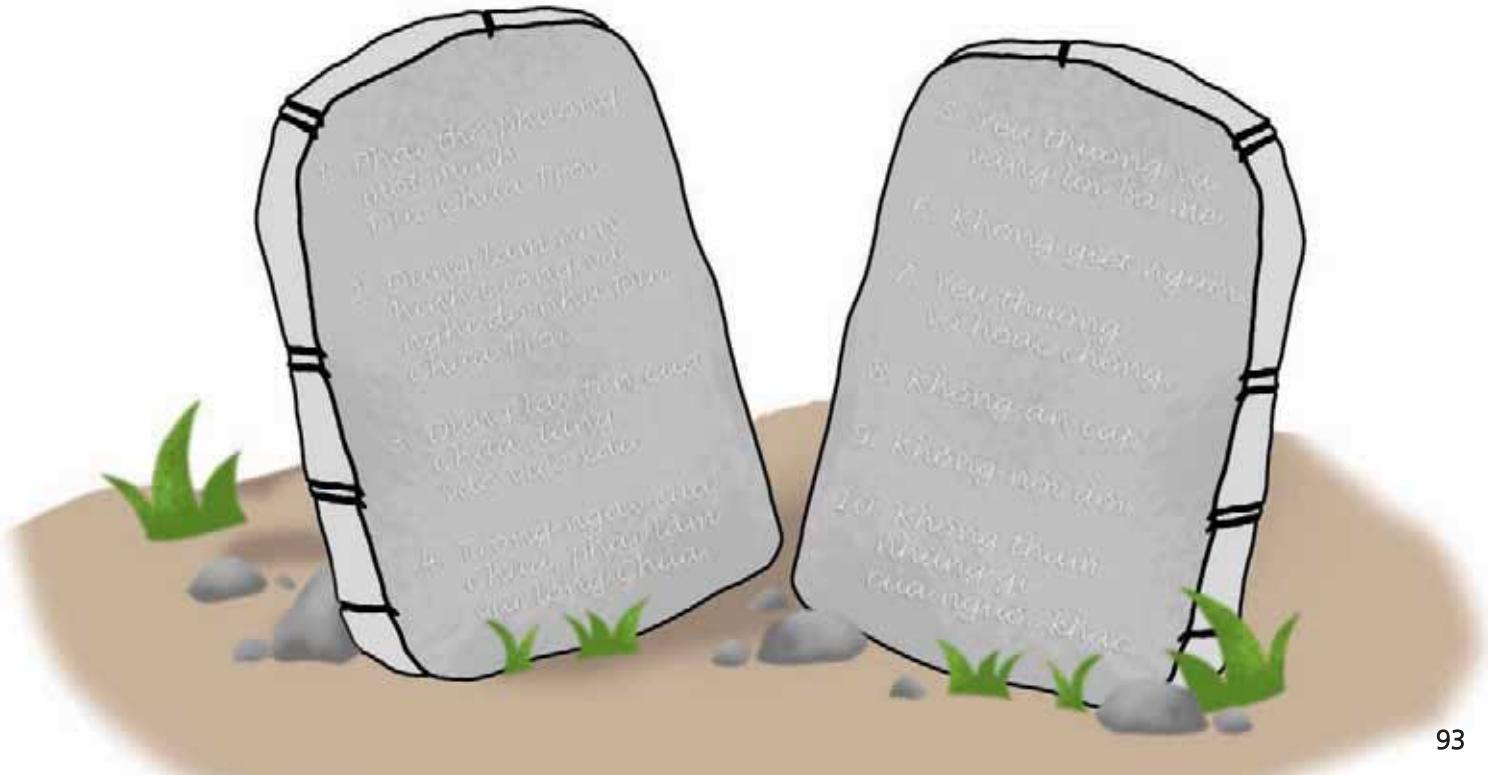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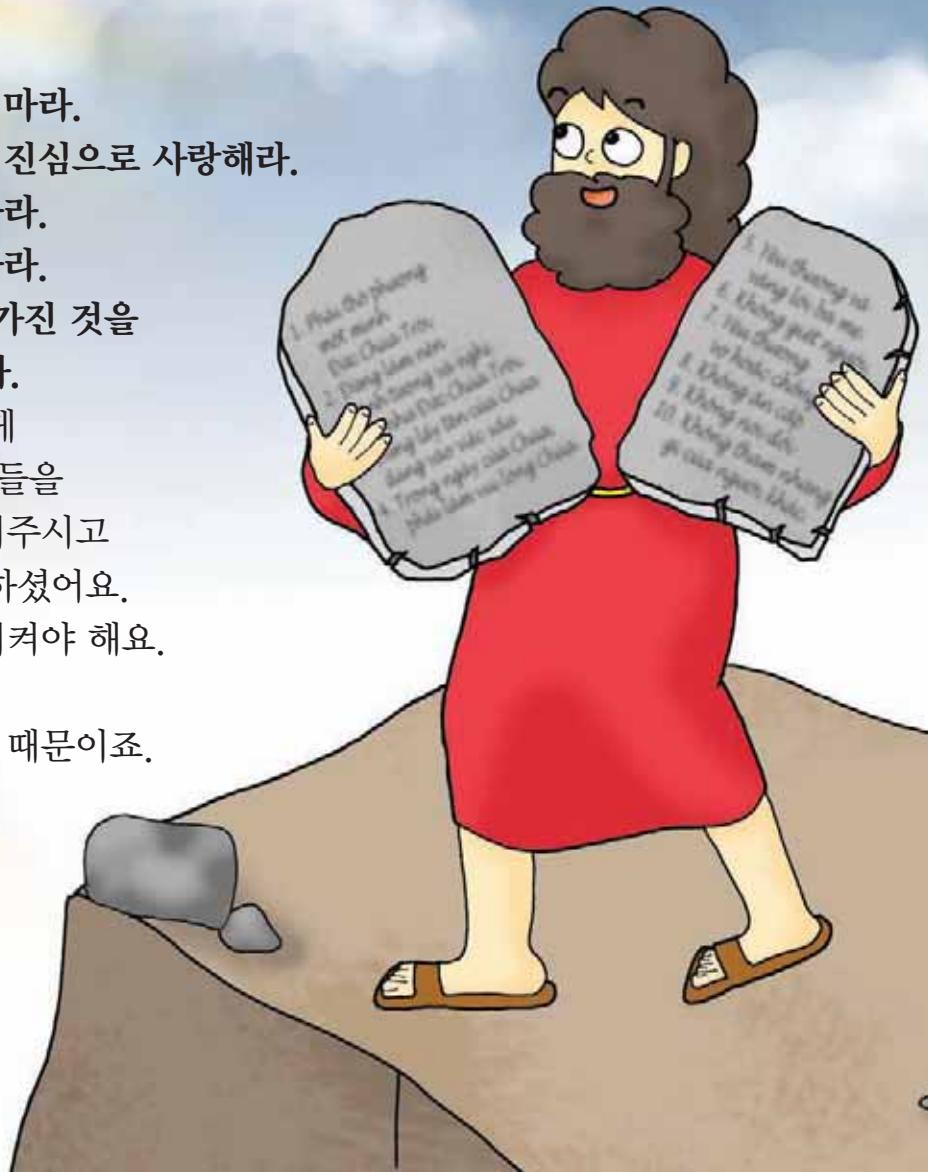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몇 가지 지켜야 할
좋은 명령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열 가지 명령 ‘십계명’ 이예요:

1.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2.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예배하지 마라.
3. 하나님의 이름을 나쁘게 말하지 마라.
4. 하나님의 날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5.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들어라.



- 
- A cartoon illustration of Moses standing on a rocky mountain peak under a blue sky with white clouds and a rainbow. He has brown hair and a beard, and is wearing a red robe and sandals. He holds two large stone tablets with the Ten Commandments written on them. The tablets are inscribed in both Korean and Vietnamese.
6. 사람을 죽이지 마라.
 7. 아내나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8. 도둑질 하지 마라.
 9. 거짓말 하지 마라.
 10.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욕심내지 마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규칙들을
잘 지키면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이 규칙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말씀하려고 갔어요. 모세가 가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려나 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우리를 도와줄 보이는 신이 필요해.”



15. 금 송아지와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백성들에게 물었어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따르겠어요?”

백성들이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금을 모아 송아지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제 이 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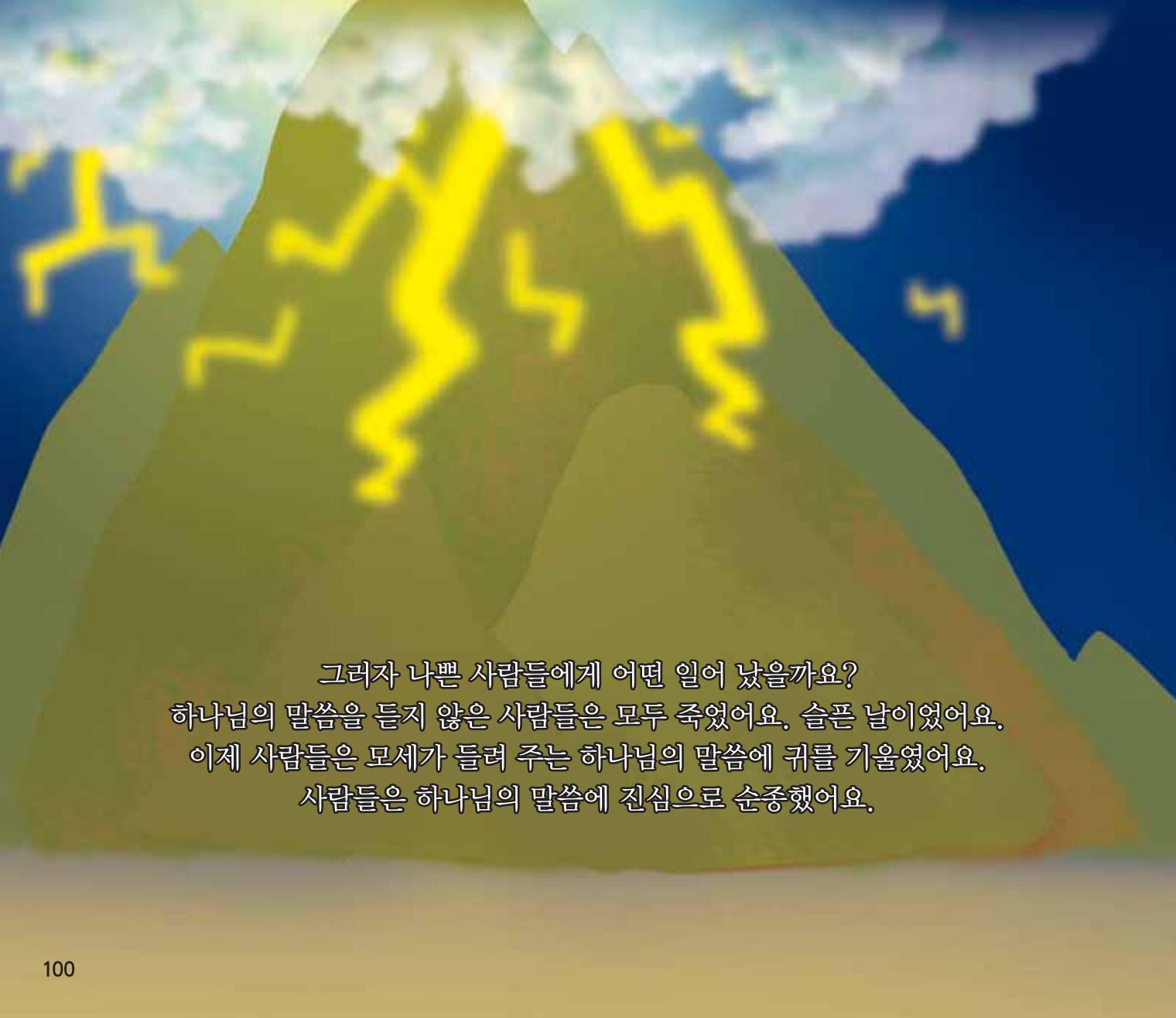




어느 날, 모세가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한 것을 보고 화를 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은 이리 나오시오!”
모세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나쁜 사람들에게 어떤 일어 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슬픈 날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모세가 들려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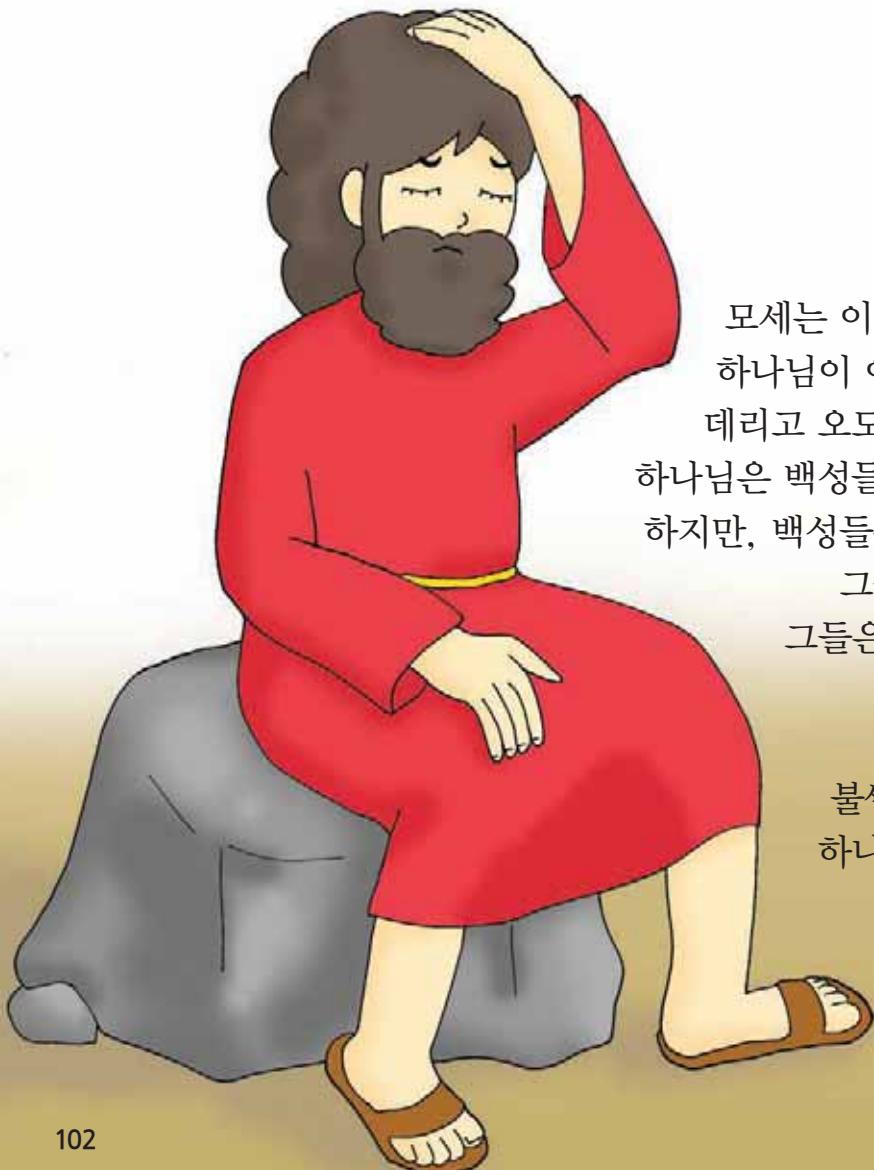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했어요.

16.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

민수기 21장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모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이제 이 형편없는 음식
‘만나’도 지긋지긋해요.”
다른 사람들도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말했어요.





모세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슬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도록 모세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셨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더 좋은 음식을 원했어요.
그들은 더 좋은 곳을 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집트의 종이었던
불쌍한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만 했어요.

하나님은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슬펐어요.

그래서 독뱀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도망쳐!”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뱀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뱀에게 물려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빌었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놋으로 큰 뱀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매달아라.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어요.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백성들이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주신
거예요.

17. “와르르르!” 예리고의 성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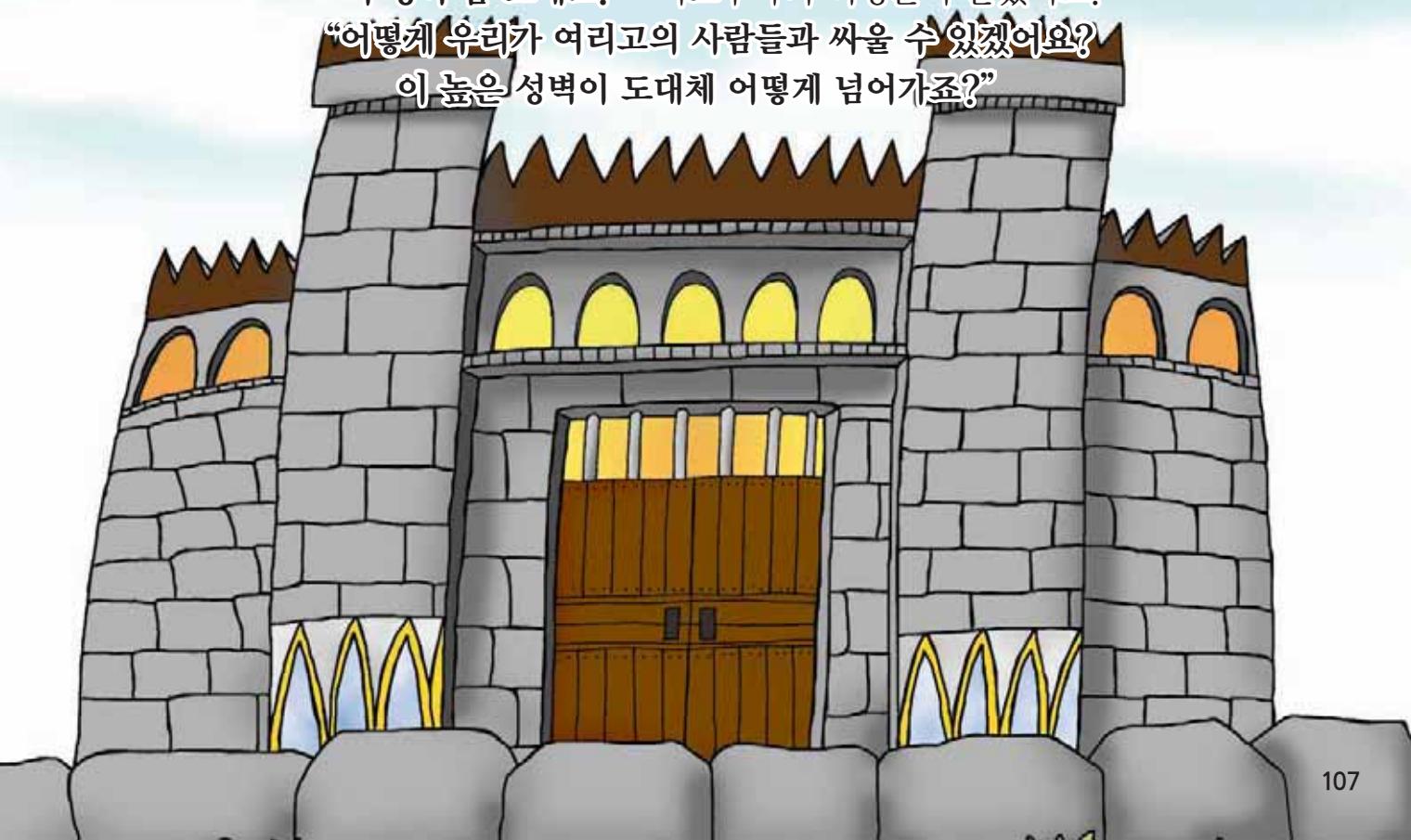
여호수아 6장

예리고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높고 튼튼한 벽으로 만든 성이에요.

“이 성벽 좀 보세요.”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말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리고의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겠어요?

이 높은 성벽이 도대체 어떻게 넘어가죠?”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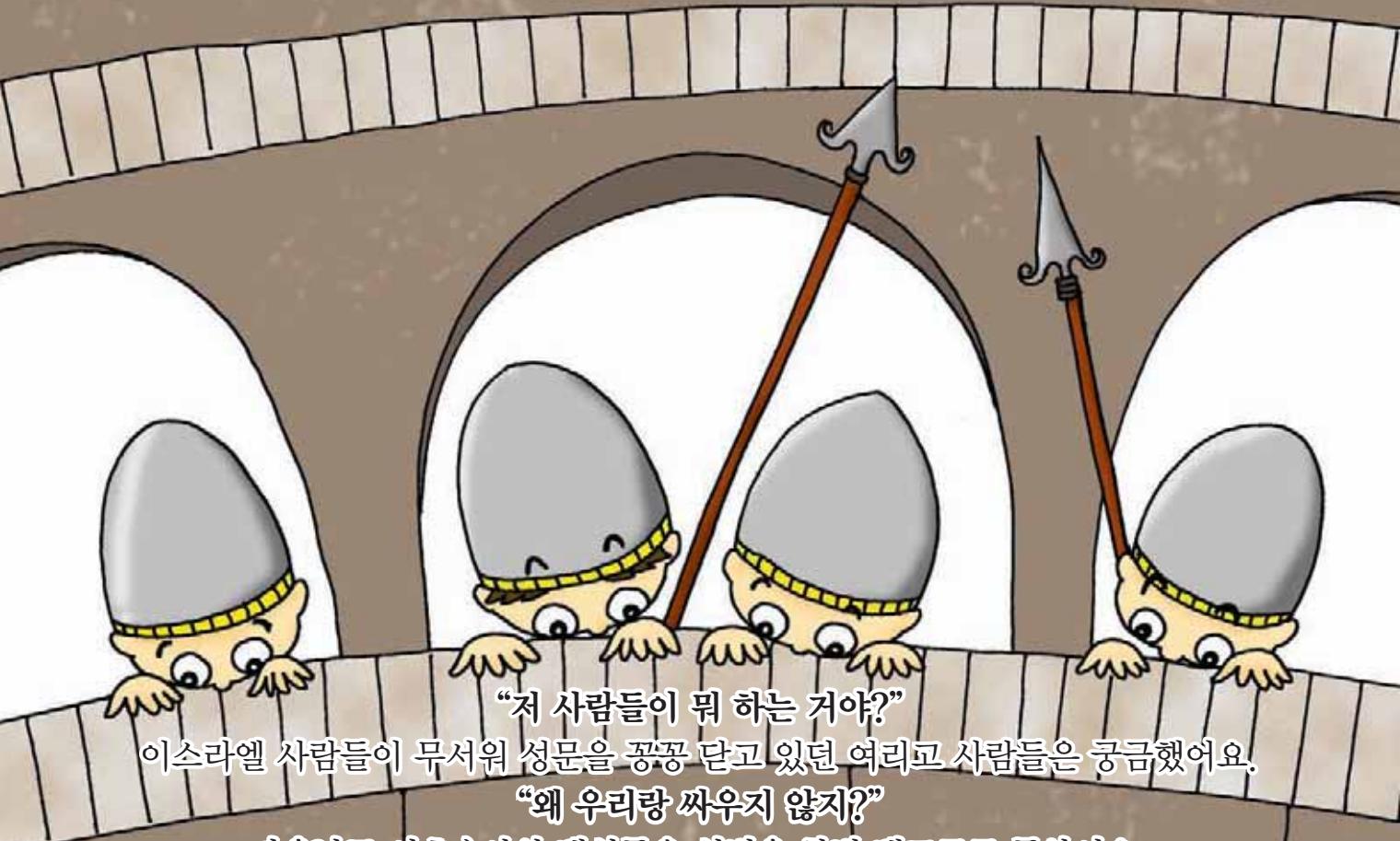
이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벽을 무너뜨릴 거예요.

첫째 날이 되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팔을 부는 찬양대를 따라 성벽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지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 성문을 꽁꽁 닫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왜 우리랑 싸우지 않지?”

다음날도 예호수아와 백성들은 성벽을 한번 뱅그르르 돌았어요.

벌써 여섯 날 동안이나 그렇게 하는군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하는 거지?” 여리고 사람들이 서로 물었어요.

벌써 일곱 번째 날이 되었어요.
오늘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돌아요.
그런데 오늘은 지난 6일 동안과는 다르네요.

이번에는 돌고 돌고 돌고...

일곱 번을 돌고 나자 크게 나팔을 부는군요. 그리고 멈춰 섰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쳐다보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팔 소리가 길게 ‘뿌우’ 났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자 백성들도 다같이 크게 소리지르기 시작했어요.

“우~ 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와르르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리고의 높고 높은 성벽은 힘없이 무너졌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여리고를 차지했답니다.

여호수아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18. 하나님의 천하장사 삼손

사사기 13~16장



삼손은 누구보다도 제일 힘 센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삼손은 사자를 이길 만큼 힘이 셨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손으로 이겼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도 다 이겼어요.



불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그들보다 너무 강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데로 할래요.”

삼손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삼손은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또 삼손은 자기 자신을 아프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삼손은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들릴라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 왔어요.

“삼손의 힘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내면

많은 돈을 주겠다.”

들릴라는 삼손을 매일매일 졸랐어요.

힘이 어디서 나는지 말해달라고

자꾸자꾸 귀찮게 했어요.

삼손은 할 수 없이 말해 주었어요.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오.”

들릴라는 자고 있던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다시 무시무시한 힘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도,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던 삼손에게는 힘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눈이 보이지 않도록 다치게 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곡식 가는 힘든 일을 시키며 비웃고 괴롭혔어요.
삼손은 그 동안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러는 사이에 조금씩 삼손의 머리카락은 자랐어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려고 거대한 신전에 모였어요.



잔치를 벌이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불러내어 놀려댔어요.

“삼손! 너를 묶은 밧줄이라도 한번 끊어 보라구. 하하하!”

삼손은 그 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번 만 더 힘을 주세요.

제 눈을 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 주게 해 주세요.”

그러자 삼손의 몸에
힘이 다시 생겨났어요.
삼손은 신전 전체를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힘껏 밀었어요.

그러자 기둥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졌어요.

신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위로 무너졌어요.





19. 나오미를 따라간 룻

룻기 1~4장

“나는 집으로 갈란다.”

나오미가 말했어요.

옛날에 고향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멀리 모압 땅으로 이사 왔었어요.

나오미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어요.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슬픈 일을 겪었어요.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지요.

“우리 고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갈 테다.”

나오미가 말했어요.

“저도 어머님과 같이 가겠어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어요.
어머님의 고향 이스라엘이 저의 고향이 되고,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임이에요.”
둘째 며느리 룻이 말했어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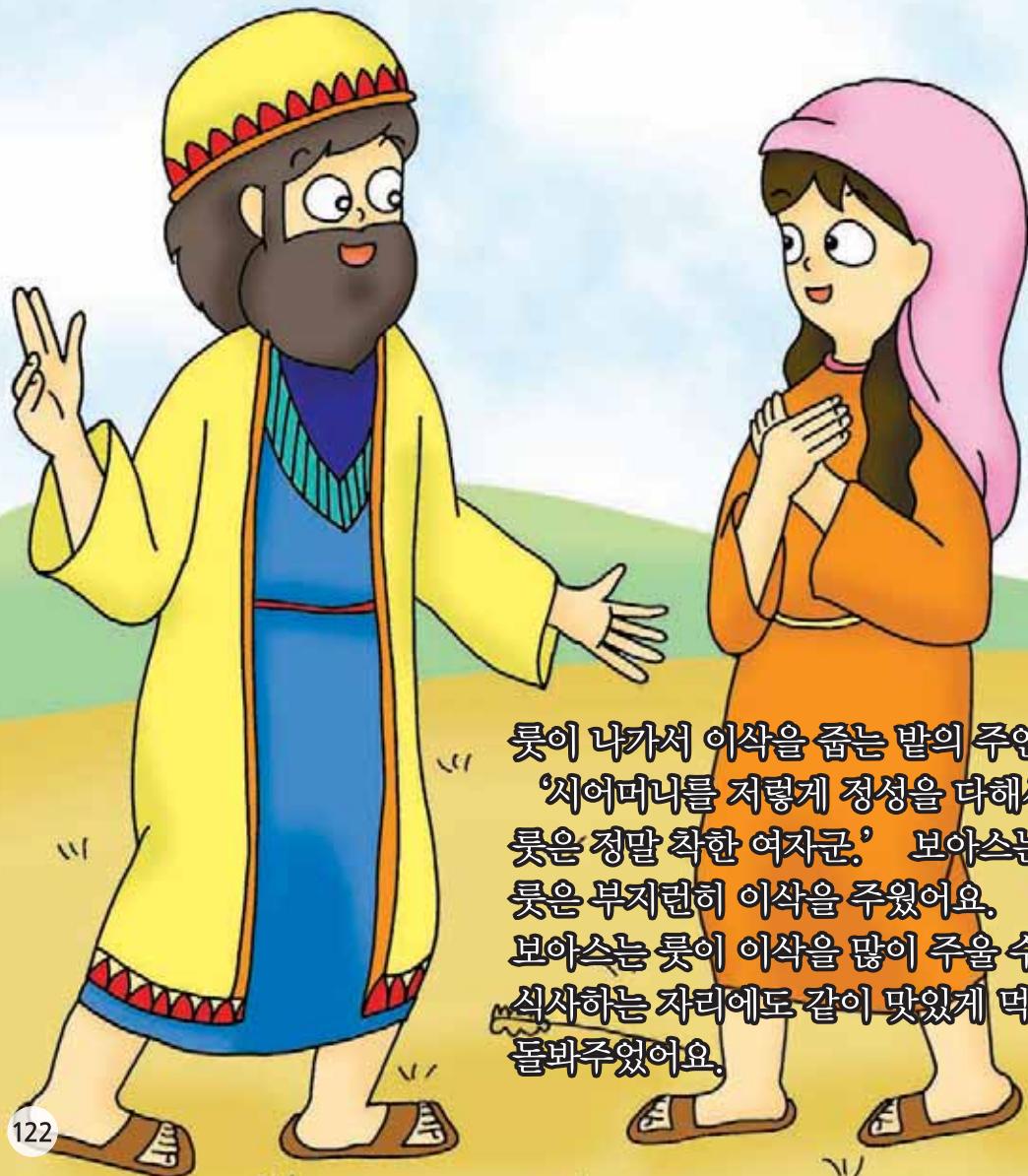




룻은 어미니 나오미와 함께 먹을
음식을 장만해야 했어요.

나오미가 돌아온 베들레헴은
마침 추수가 시작되는 때였어요.

룻은 마을 보리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나오미와 함께 먹었어요.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는 밭의 주인은 보아스였어요.
‘시어머니를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씹기다니
룻은 정말 착한 여자군.’ 보아스는 생각했어요.
룻은 부지런히 이삭을 주웠어요.
보아스는 룸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식사하는 자리에도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돌봐주었어요.

보아스는 마음씨 착한 부자였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풍습은 남편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게 되어 있단다.

보아스가 너를 좋아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니?”

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답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오벳’이라는 남자 아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할머니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정말 행복했어요.
착한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20. 하나님의 사랑, 사무엘

사무엘상 1~2장

“엉, 엉, 엉!”

성전에서 한나가 큰 소리로 울며 기도하고 있어요.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었어요.

남편인 엘가나가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상하게 보살펴주었지만,

엘가나의 다른 부인인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주신다면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아니, 아주머니, 술을 끓으셔야지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어요.

“저는 술에 취한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말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기를 주셨어요.

한나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아기 이름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사무엘이 젖을 떼고 아이가 되었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러지요.”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한나는 아기를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 드렸어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살게 되었어요.

엘리 제사장을 도우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예배 드리기 위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함께 성전에 왔어요.
한나는 그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만들어 왔어요.
엘가나와 한나 부부에게 엘리 제사장은
축복해 주기를 바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사무엘을 대신해서 다른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이를 낳게 해 주셨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무엘은 자다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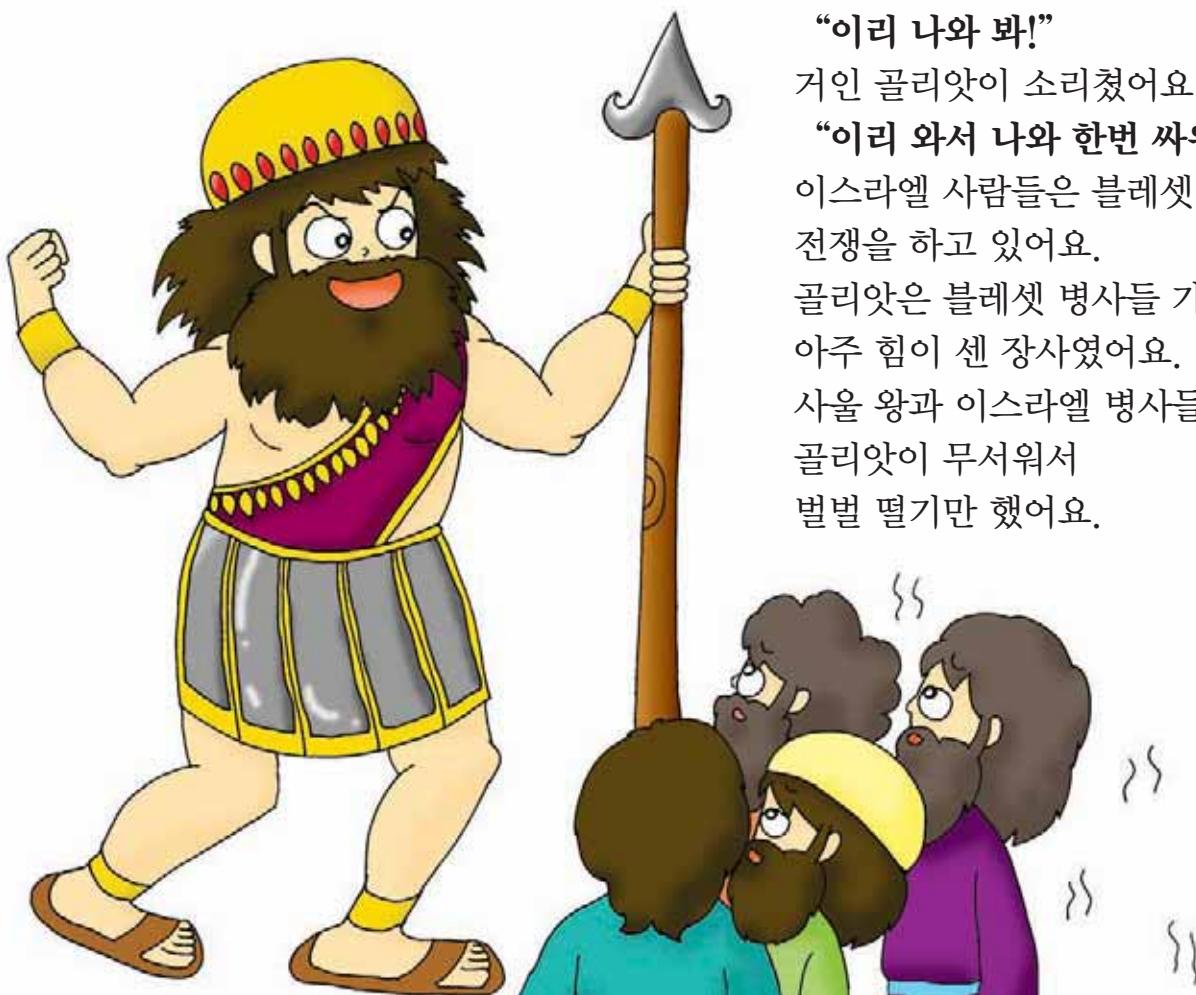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21. 용감한 소년, 다윗

사무엘상 17장



“이리 나와 봐!”

거인 골리앗이 소리쳤어요.

“이리 와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골리앗은 블레셋 병사들 가운데
아주 힘이 센 장사였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했어요.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어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 주러 온 다윗이 말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바보처럼 놀리는 것에 화가 났어요.

“너는 아직 어린아이지만 저 골리앗은 싸움을 잘하는 군인인데?”

다윗의 왕 사울이 물었어요.

“제가 양떼를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양을 뺏어가려고 하면, 제가 혼내주었어요.

골리앗도 하나님의 도와 주셔서
이기게 해 주실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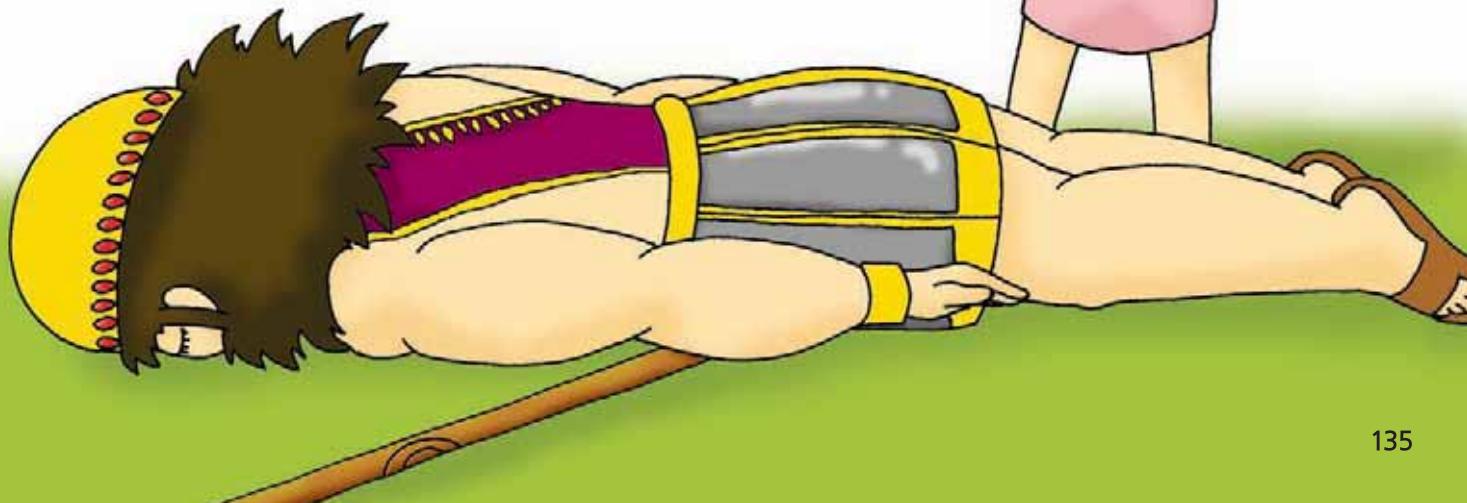
사울 왕은 자신의 갑옷과
머리에 쓰는 투구를 빌려주었어요.
하지만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막대기와 돌멩이,
그리고 물매를 손에 들고
골리앗에게 갔어요.
골리앗은 살결이 불그스레하고
잘 생긴 어린 다윗이 나오자
기분이 나빴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다니,
내가 강아지인 줄 알아?”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네가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지?
너를 이겨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줄 테다.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도 필요 없다.”
다윗이 용감하게 말했어요.
다윗은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
물매에 넣고 던졌어요.



‘쌩’ 하고 날아간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고
골리앗은 앞으로 넘어졌어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뛰어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았았어요.
다윗이 이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병사들을 쫓아가서
완전히 무찔렀답니다.



“다윗아! 너는 매우 용감한 소년이다.”

사울 왕이 말했어요.

다윗은 정말 용감했어요.

사람들은 다윗이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22. 좋은 친구들, 다윗과 요나단

사무엘상 18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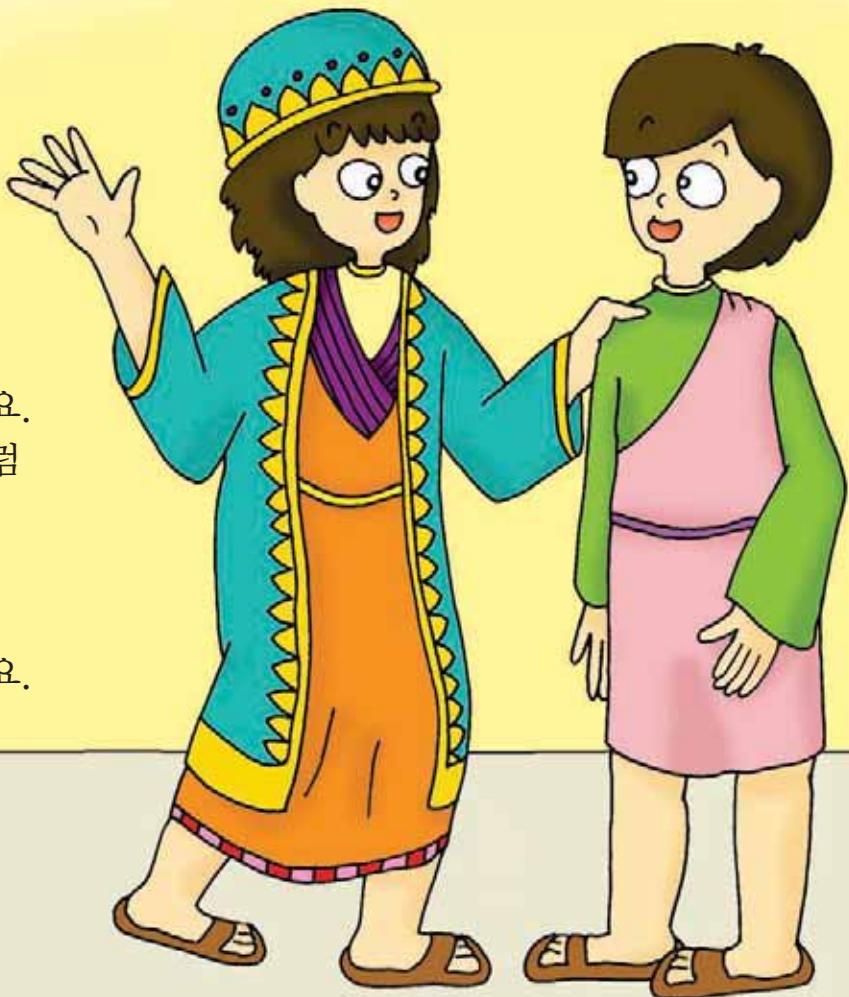
사울 왕은 다윗이 블레셋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았어요.

사울 왕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용감한 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멋진 소년이었어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요나단 왕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어요.





요나단은 좋은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날선 멋진 칼을
주었어요.



또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의 활과
화살들도 주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요나단의 멋진 걸옷도 주었어요.
“이것은 내가 너의 친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할거야.”
요나단이 말했어요.



“왕자님의 가장 좋은 물건들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다윗이 말했어요.

“그리고 저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군이 되었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 왕이 수 천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네.”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은
다윗에게 샘을 냈어요.
화가 난 사울 왕은
다윗을 해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여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23.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재판

열왕기상 3장

“솔로몬 왕, 만세!”

사람들이 크게 소리쳤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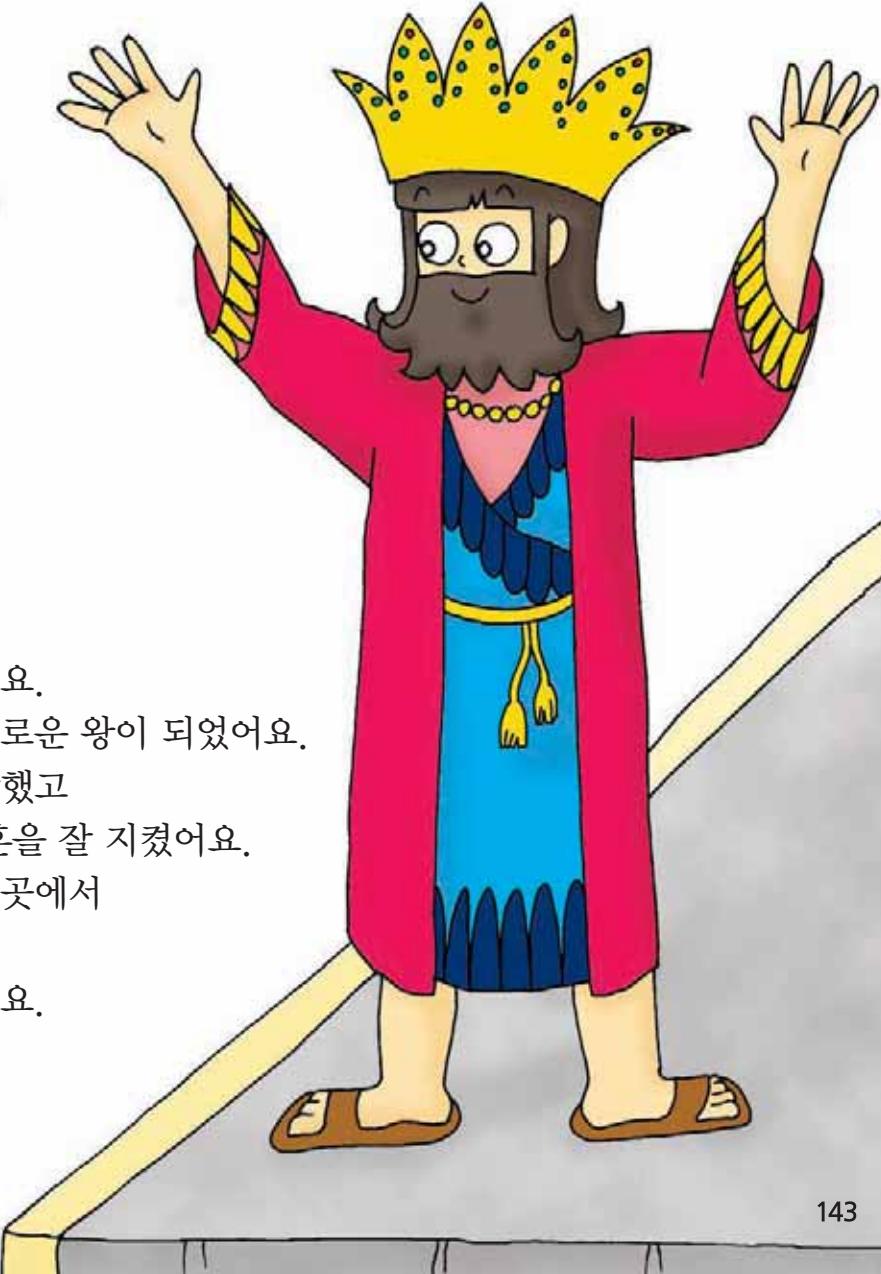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인 다윗 왕의 교훈을 잘 지켰어요.

솔로몬은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천 마리의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 속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네가 갖고 싶은 것을 말해 보아라.
내가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기뻐하셨어요.
부자가 되거나 오래 살게 해 달라고 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자도 되게 해 주고,
하나님을 따르고 살면 오래 살게 해 주겠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복도 같이 주셨어요.

하루는 두 엄마가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요.

“이건 내 아기예요.” 한 엄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내 아기예요.” 다른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는 한 집에 살고 있어요.
둘 다 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밤새 한 아기가 죽게 되자,
내 아기랑 바꾸어 놓았어요.”
두 엄마는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웠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솔로몬 왕은 말했어요.
“여봐라! 여기 칼을 가져오너라.”
신하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왕의 명령대로 칼을 가져왔어요.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두 여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왕은 명령을 내렸어요.



“안돼요.”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는 마음이 아팠어요.
“차라리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 한 엄마가 엉엉 울며 말했어요.
“좋아요.” 다른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기를 죽이지 말라! 그 엄마에게 아기를 주어라.”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왕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왕은 진짜 지혜로우시네.”

재판하는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놀라며 말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하는 왕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백성들은

이웃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24.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집

열왕기상 5~8장



“솔로몬 왕이
무얼 하는 거지?”
사람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거라네.”
다른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마 매우 아름답게
지어질 걸세.”



두로의 왕 히람은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 왕의 친구였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 가장 좋은 나무들을 주십시오.”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성전을 지을 좋은 나무를 부탁했어요.

히람 왕은 가장 좋은 나무를 솔로몬에게 주는 대신

두로의 백성들을 위한 식량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삼만 명의 사람들을

히람 왕에게 보내서 나무를 잘라 오도록 하였어요.

솔로몬 왕은 산에서도 돌을 깎는 사람 팔만 명을 두었어요.

깎은 돌을 옮겨오는 사람도 칠만 명이나 되었어요.

성전 짓는 기술자들을 돋는 사람도 삼천 명이 넘었어요.

솔로몬 왕은 그들에게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쓸 크고 고운 돌을 깎도록 했어요.

집을 지을 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쓸 돌을 다듬었어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낫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성전 한쪽을 금으로 입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을 가지고 일했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어요. 성전은 아주 크고 아름다웠어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그 동안 사용하던 성전의 거룩한 물건들을 옮겨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마치자,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어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두 모이게 했어요.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두 기뻐했어요.

25. 엘리야를 뱙이신 하나님!

열왕기상 17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께 하나님은 벌을 내리실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게 될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합 왕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부인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는 도망가야 했어요.

하지만 아합 왕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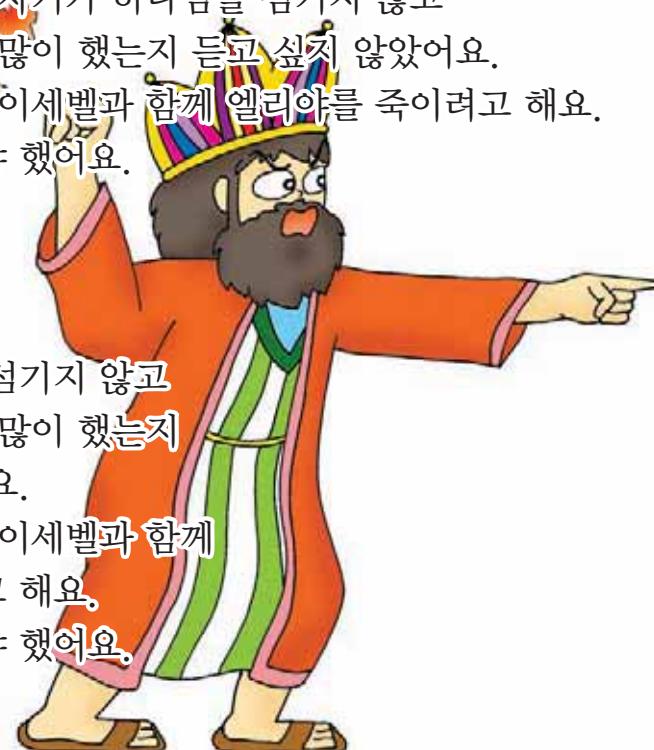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부인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는 도망가야 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왕을 피해 숨어라!”



“어디로 갈까요?”

엘리야가 물었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조그만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곳의 시냇물을 마셔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무얼 먹고 살죠?”

엘리야가 물었어요.

그릿 시냇가에는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매일 엘리야에게
음식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까마귀들에게
엘리야의 음식을 보내셨어요.
까마귀들은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어요.
엘리야는 그 곳의 시냇물을 마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매일 좋은 음식을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감사드렸어요.

26. 엘리야가 도와 준 가족

열왕기상 17장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얼마 뒤에 그릿 시냇물도 다 말라 버렸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자,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곡식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까요?”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사르밧으로 가거라.

거기서 한 과부가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어요.
엘리야가 성문으로 들어갈 때
남편이 없는 한 여인이 땎감을 줍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마실 물 좀 주시겠어요?”
그 과부가 마실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또 말했어요.
“빵도 조금만 가져다 주세요.”

엘리야에게 그 여자가 말했어요.

“저에게는 항아리에 우리 가족과 겨우 한번 먹을 밀가루 밖에 없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세요.

그러나 먼저 빵을 나에게 가져오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과 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비가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의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는 집으로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어요.

그 이후에 엘리야와 여자와 그의 아들이 날마다 음식을 넉넉하게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여자가 엘리야에게 풍성한 음식을 먹게 해 주어서 감사했어요.

엘리야도 여자가 준 음식을 먹게 된 것에 감사했어요.



27. 엘리사를 위해 만든 빵

열왕기하 4장

“제발 이 길로 지나가실 때는
꼭 저희 집에 들르셔서
같이 식사해 주세요.”

엘리사가 수넴으로
갔을 때였어요.

수넴에 사는 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부탁했어요.

“엘리사님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돋고 싶어요.”

엘리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분이에요.



수넴 여자와 남편은 엘리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엘리사를 돋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를 식사에 초대했죠.
더군다나 엘리사는 수넴 여인 부부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았어요.
엘리사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깜짝 놀랄 일을 만들었어요.
남편에게 부탁해서 엘리사를 위한 멋진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쪽으로 와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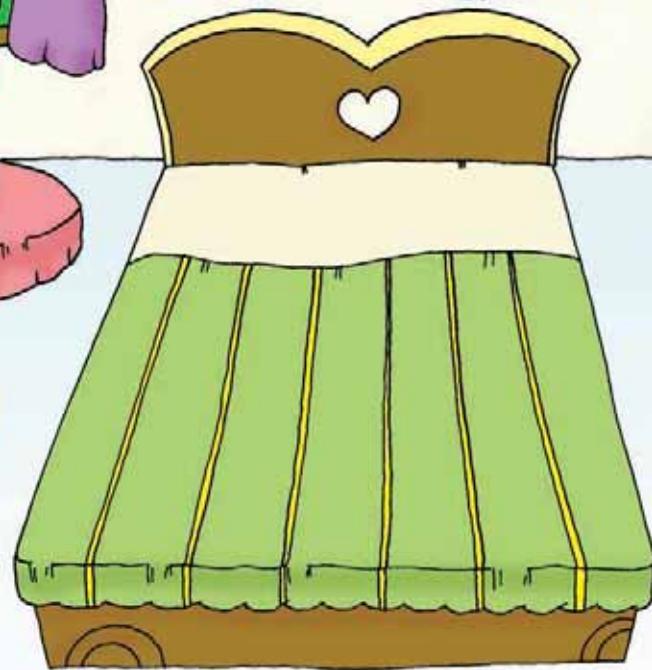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 잘 꾸며진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쉴 수 있는 침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도 있는 방이었어요.
등잔불이 방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엘리사님을 위해 만들었어요.”

이곳으로 지나가실 때마다 이 방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엘리사는 방안을 보자,
빙그레 웃음이 나왔어요.
방은 잘 준비된 곳이었어요.
“저를 위해 방안에
좋은 물건들을 두셨군요.”
엘리사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엘리사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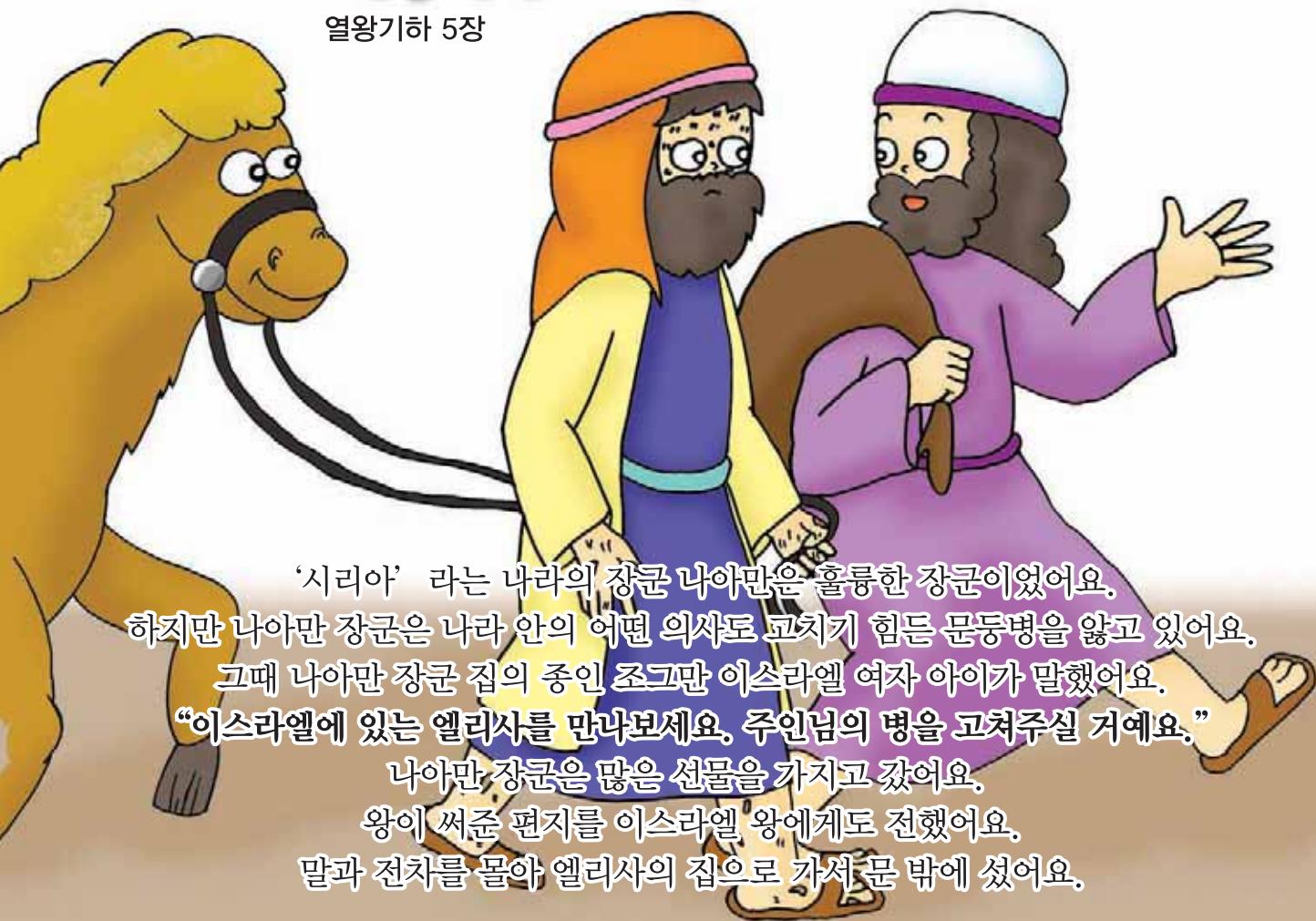
수넴 여인이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분을 돋는 것도 자랑스러워요.”



28. 하나님을 만난 나아만

열왕기하 5장



‘시리아’라는 나라의 장군 나아만은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나라 안의 어떤 의사도 고치기 힘든 문등병을 앓고 있어요.

그때 나아만 장군 집의 종인 조그만 이스라엘 여자 아이가 말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보세요. 주인님의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왕이 써준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도 전했어요.

말과 전차를 몰아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문 밖에 섰어요.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나아만 장군에게 보냈어요.

“요단 강으로 가서 일곱 번 씻으세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시리아에서 최고의 장군인 자신에게
함부로 대한 엘리사에 대해>
나아만은 화가 났어요.

“엘리사가 밖으로 오지도 않네.
내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지도 않네.
병든 자리에 손도 대어주지 않네.
우리나라에도 강은 많단 말이야!”
나아만은 크게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어요.



화가 나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나아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만약 엘리사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껏 해야 몸을 씻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못하시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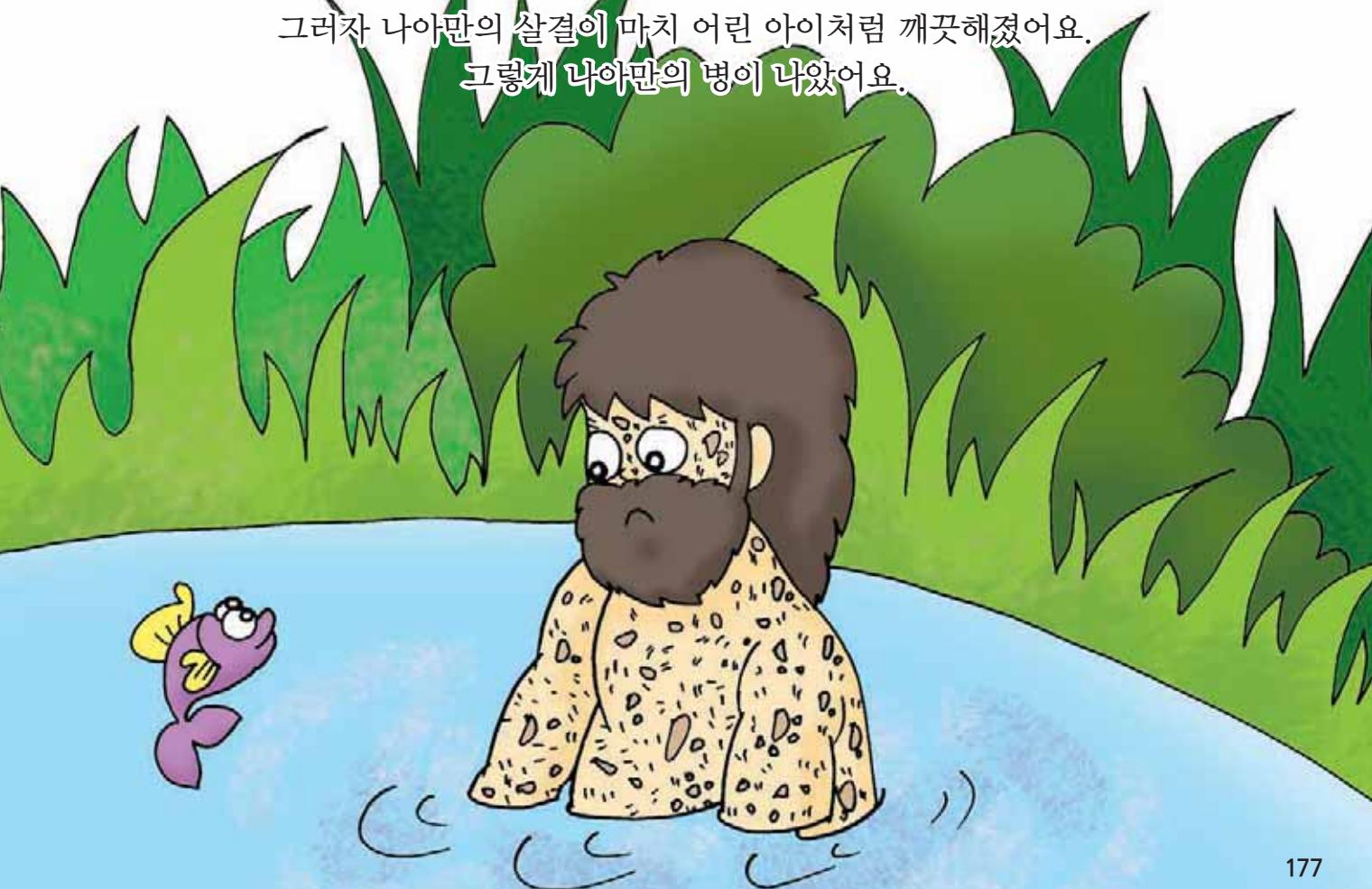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으로 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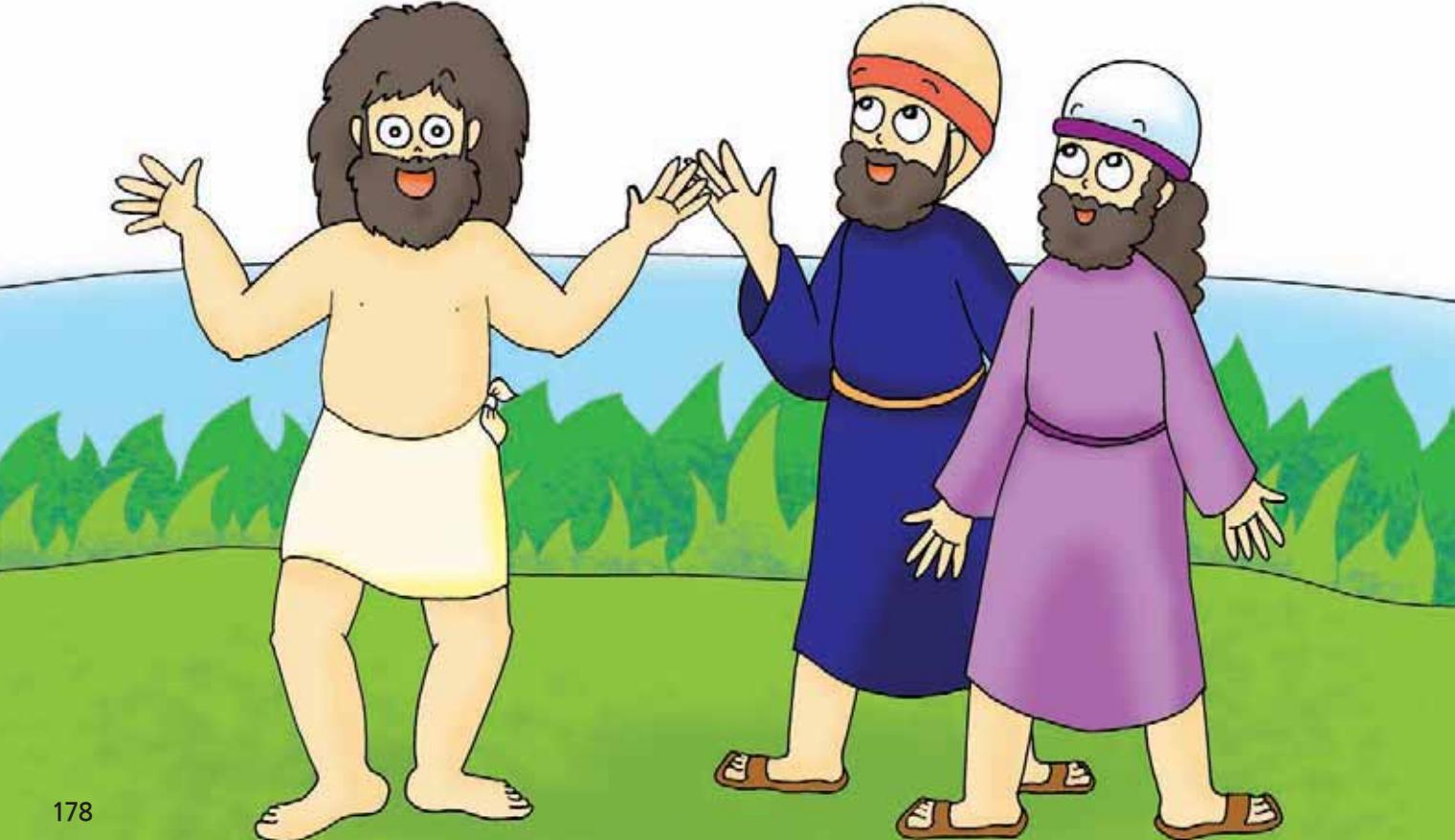
한 번, 두 번, … 일곱 번 목욕했어요.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 아이처럼 깨끗해졌어요.

그렇게 나아만의 병이 나았어요.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좋아진 나아만 장군은 하늘을 날듯이 기뻤어요.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말했어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해서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엘리사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잘 전했어요.



29. 다 함께 지은 하나님의 성전

역대하 24장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또 백성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자주 오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성전을 잘 돌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고쳐야겠다.”

요아스 왕이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해.”



“현금을 넣을 커다란 상자를 만들어라.
성전 밖에 놓아두어라.”
요아스 왕이 명령했어요.



백성들은 성전을 고치는데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상자가 꽉 차면 왕의 신하들이
현금을 꺼내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렇게해서 요아스 왕은
성전을 수리할 많은 현금을
모았어요.



요아스 왕은 현금을 성전 공사를 맡은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돌을 다듬는 사람, 나무를 깎는 사람, 쇠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 사람들은 “영차 영차!” 열심히 일했어요. 성전은 잘 고쳐졌어요.
원래의 모습대로 고쳐졌어요. 성전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성전을 고치고 남은 현금으로 성전에서 쓸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성전은 매일 예배 드리는 곳이 되었어요. 성전은 행복한 곳이 되었어요.



30. 새로운 성벽 쌓기

느헤미야 1~8장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신하예요.
하루는 느헤미야가 궁정에 있을 때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도 불타 버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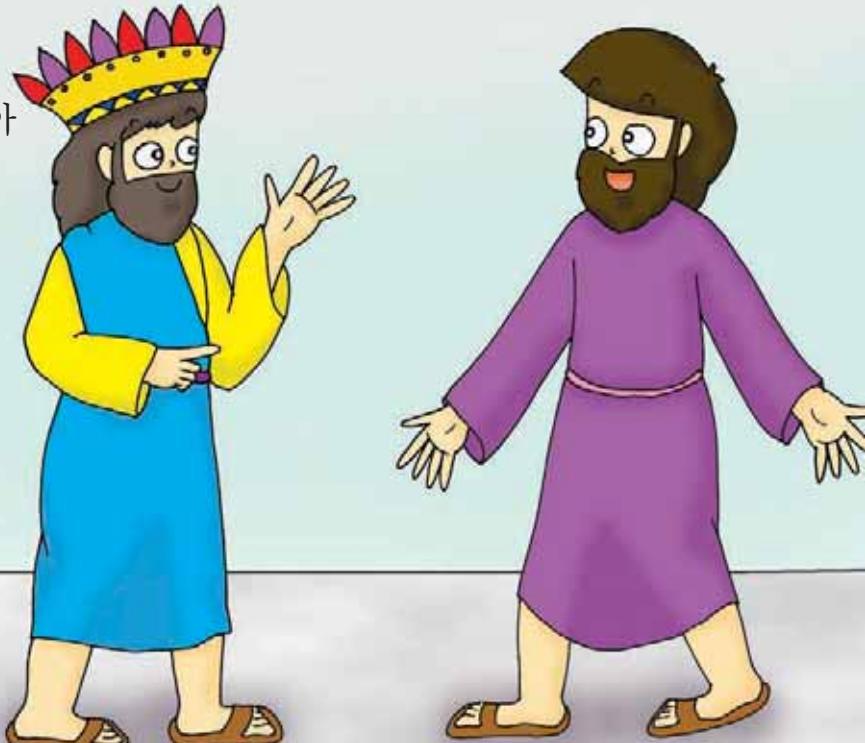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어요.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루는 왕의 곁에 있을 때에
왕이 물었어요.

“왜 그리 슬퍼하느냐?”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느헤미야는 대답했어요.

“제가 살던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부서졌대요.
그 성문들이 불에 타 버렸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이 좋아하는 신하예요.

왕이 매우 걱정하며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느헤미야가 대답했어요. “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제발 제가 다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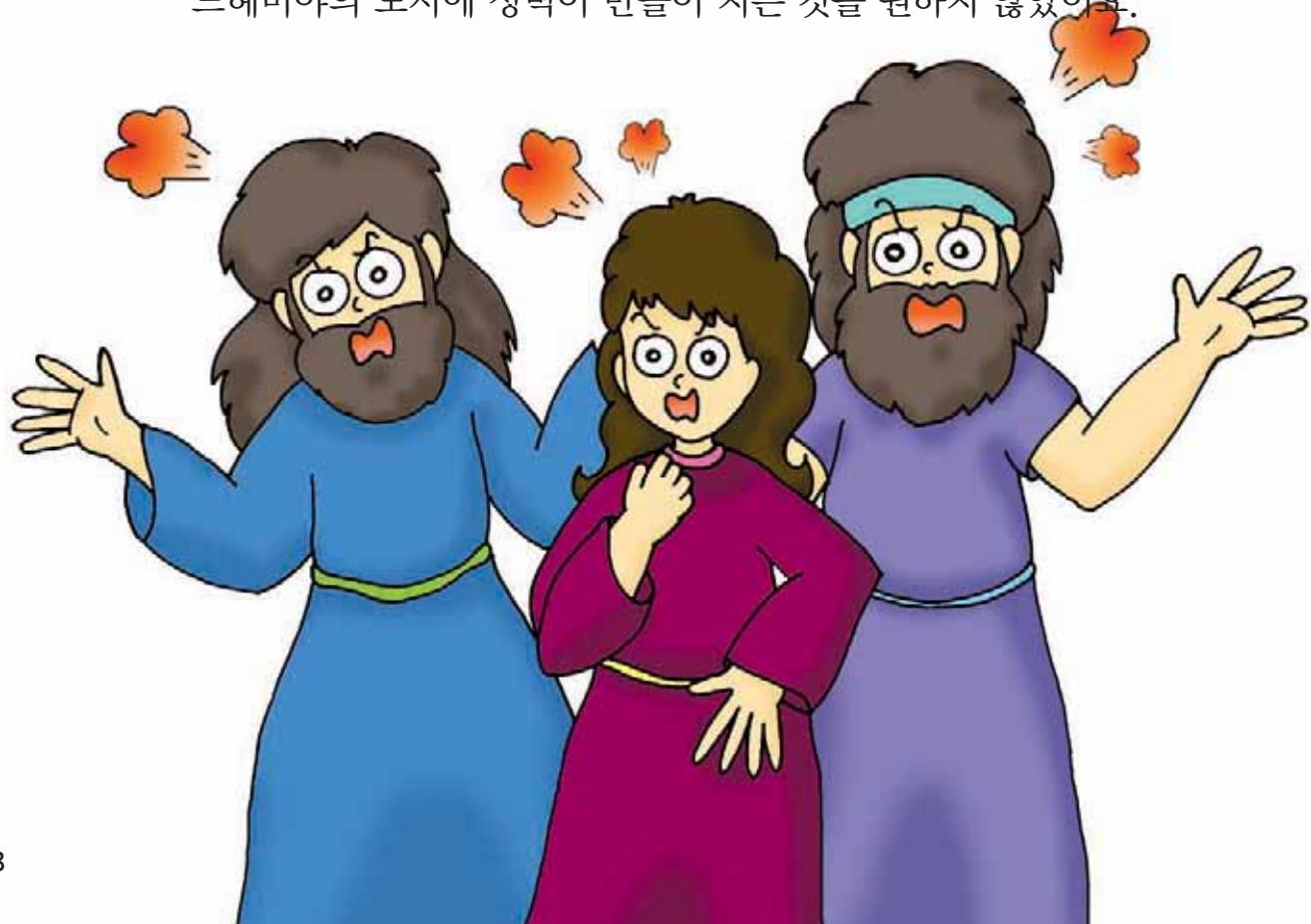
“가도 좋다.” 왕이 말했어요.

“네가 성벽을 쌓거라.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을 주겠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왕이 도와준 성전 벽을 쌓을 재료들을 가지고 갔어요.
느헤미야를 도와줄 사람들도 만났어요.
“영차 영차!” 힘을 모아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산발랏과 도비야는 몹시 화를 내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그들은 느헤미야를 다치게 하려고 했어요.
느헤미야를 돋는 사람들도 다치게 하려고 했어요.
느헤미야의 도시에 성벽이 만들어 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셨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달도록 도와주셨어요.

성전 벽을 세우는 동안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러나 성전 벽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느헤미야의 친구들은 성벽을 보려고 왔어요.

그들은 느헤미야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렸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렸어요.



31. 용감한 왕비 에스더

에스더 1~10장



“하만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네.”

사촌 오빠 모르드개가
에스더 왕비에게 말했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스더가 말했어요.



“왕비님! 왕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모르드개가 말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오라고 해야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인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여인이에요.

사촌 오빠 모르드개는 성전 문을 지키는 왕의 신하였죠.

그런데 왕의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비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에스더가 말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에스더 왕비는 목숨을 걸고 허락없이
아하수에르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왕은 왕비를 기쁘게 맞아 주었어요.



왕비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은 에스더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제발 저의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에스더 왕비가 말했어요.
“나쁜 사람이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요.
저도 죽이려고 해요.”



왕은 그렇게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왕은 에스더 왕비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쁜 신하 하만에게 멈추라고 했어요.

에스더 왕비는 백성의 목숨을 구했어요.



에스더와 백성들은 이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에스더가 용감한 왕비였기에 행복하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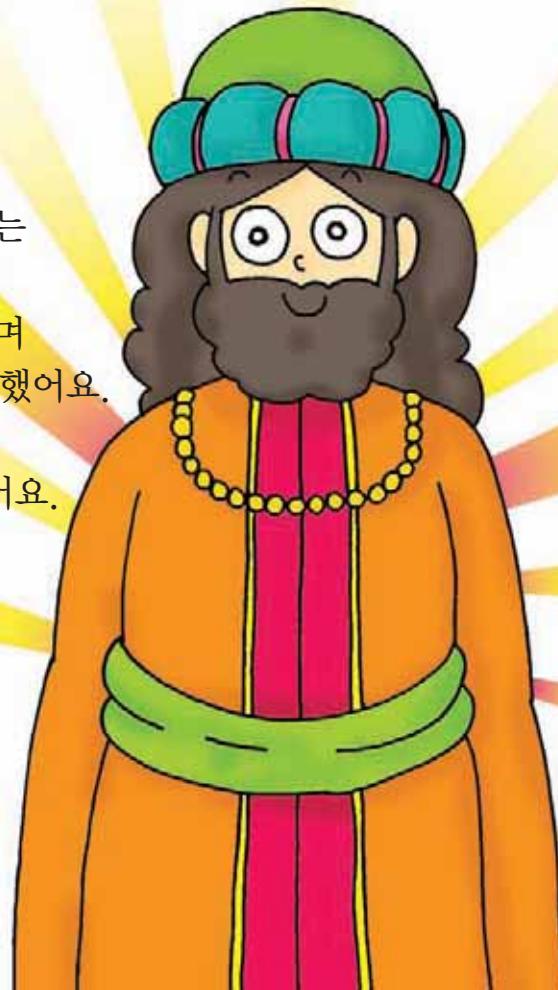
32. 항상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욥기 1장, 42장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슬픈 일들이 일어나
욥의 마음이 아프게 됐어요.
“주인님!! 주인님!!”
욥의 신하가 달려왔어요.
“나쁜 사람들이 당신의 동물들을
잡아갔어요.”



그러자 다른 신하가 읍에게 달려왔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남아있던
주인님의 가축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종들도 다 죽였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신하가 육에게 달려왔어요.

“주인님의 아이들이 모두 죽었어요.”

육은 너무나 슬펐어요.

그러나 육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돌아갈 거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육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후, 육은 아프게 되었어요.
육을 괴롭힌 이 모든 일들은 사탄이 한 거였어요.
사탄은 육을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버리려고 한 거에요.
하지만 육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할거야.”
육이 말했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거야.”

괴로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육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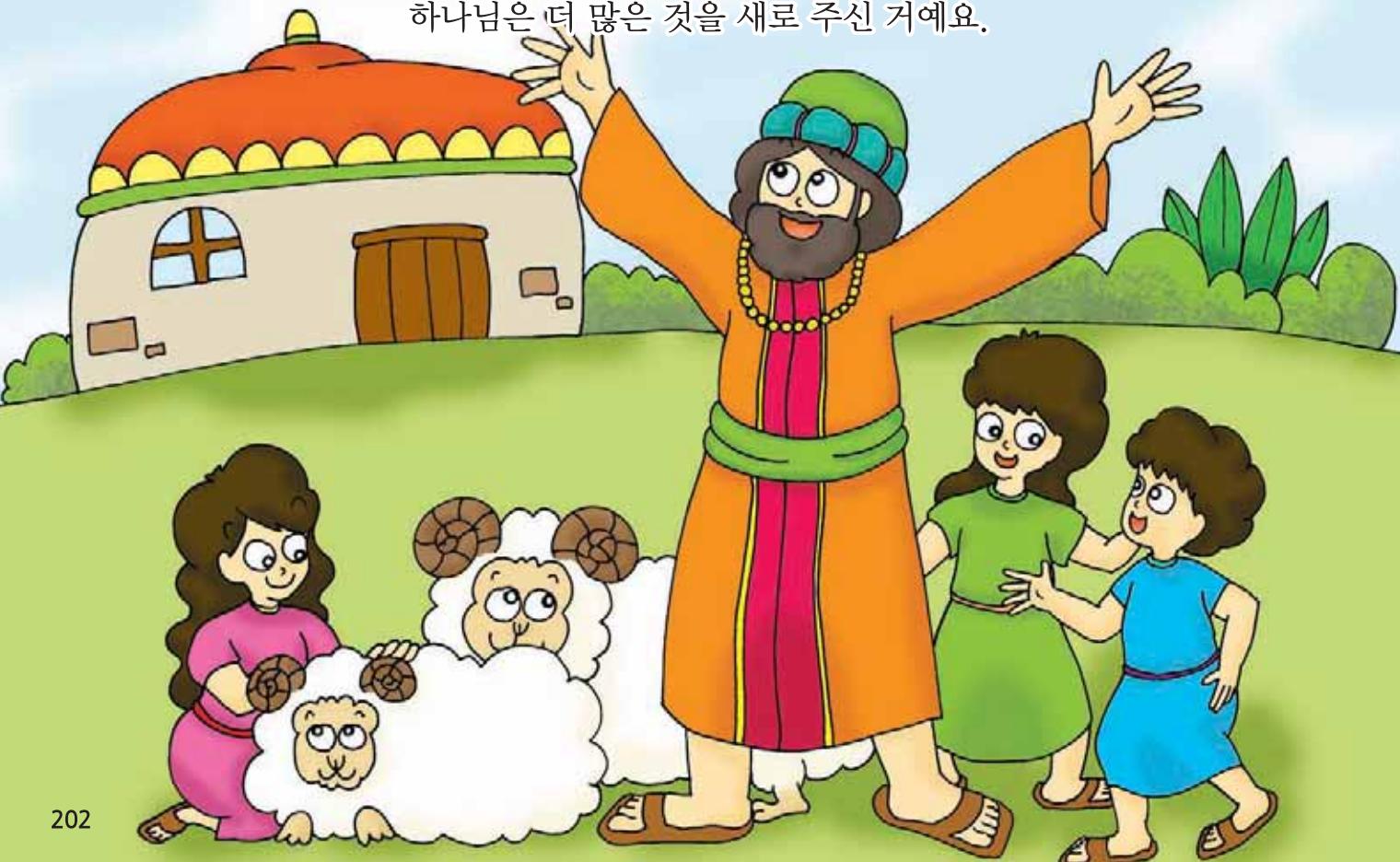
육도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곧, 하나님은 그의 병을 낫게 해 주셨어요.

그 뿐만 아니라, 옛날보다 더 많은 소와 양을 주시고 열 명의 아들과 딸도 주셨어요.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은 육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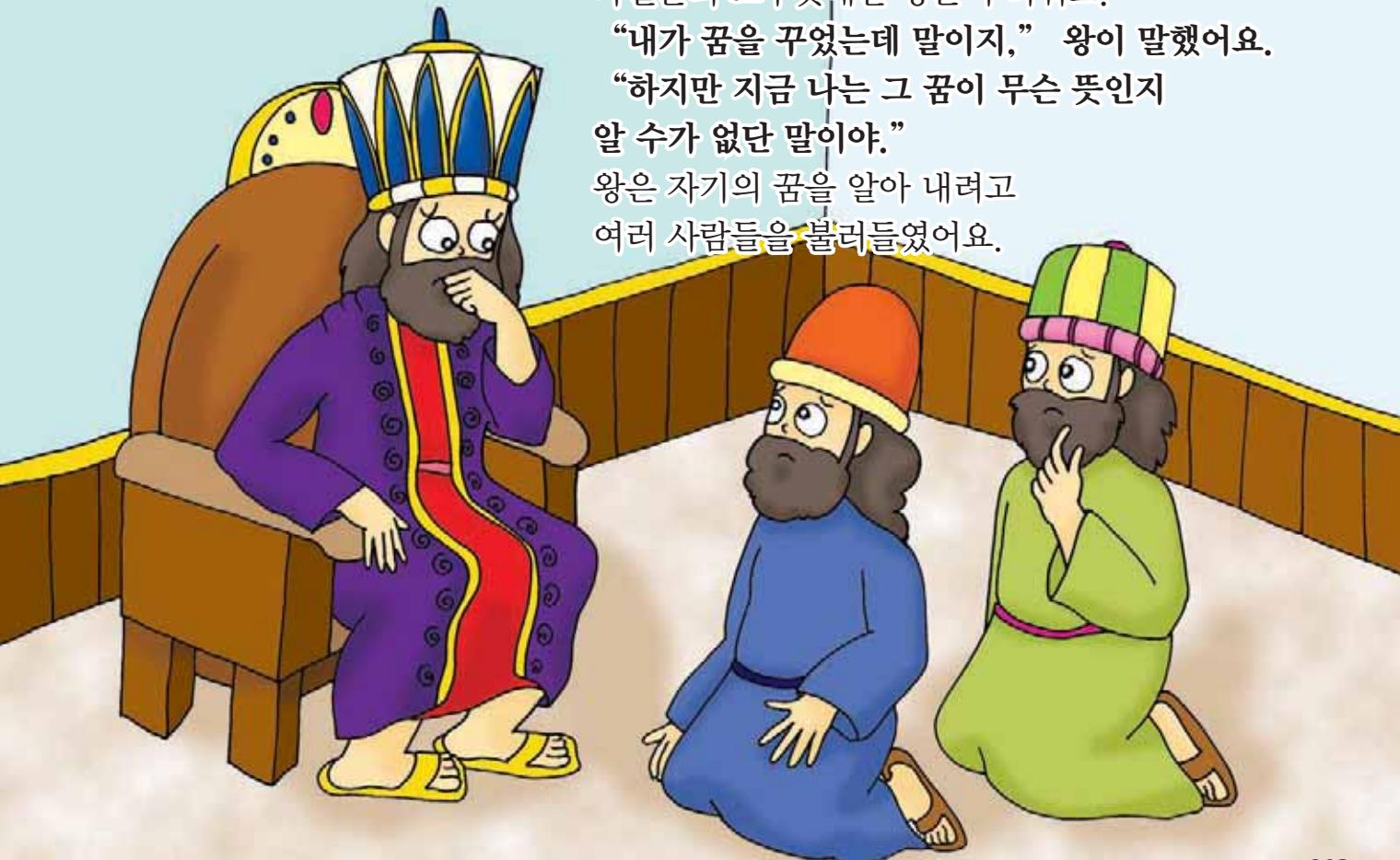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새로 주신 거예요.



33. 왕의 꿈을 풀어준 다니엘

다니엘 2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워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말이지.” 왕이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나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왕은 자기의 꿈을 알아 내려고
여러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만은
왕에게 말했어요.

“제가 왕의 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왕의 꿈에 대해서 말씀 드렸어요.

“왕이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또 그 꿈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왕의 꿈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왕의 꿈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드렸어요.





다니엘은 왕에게 그의 꿈에 대해 말씀 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왕의 꿈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왕은 꿈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만족하게 되었어요.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왕은 다니엘의 지혜에 놀랐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앉히고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온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의
선생님으로 세웠어요.
다니엘은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렸어요.



34.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

다니엘 6장



“다리오 왕이 다른 나라 사람인 다니엘을
우리 위에 세우려고 하고 있어.”

다리오 왕의 또 다른 신하들이 말했어요.

왕이 다니엘을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웠어요.

다니엘이 충성스럽게 나라의
일을 잘 맡아 처리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신하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왕에게 일러서
벌을 받게 하려고 했지만
아무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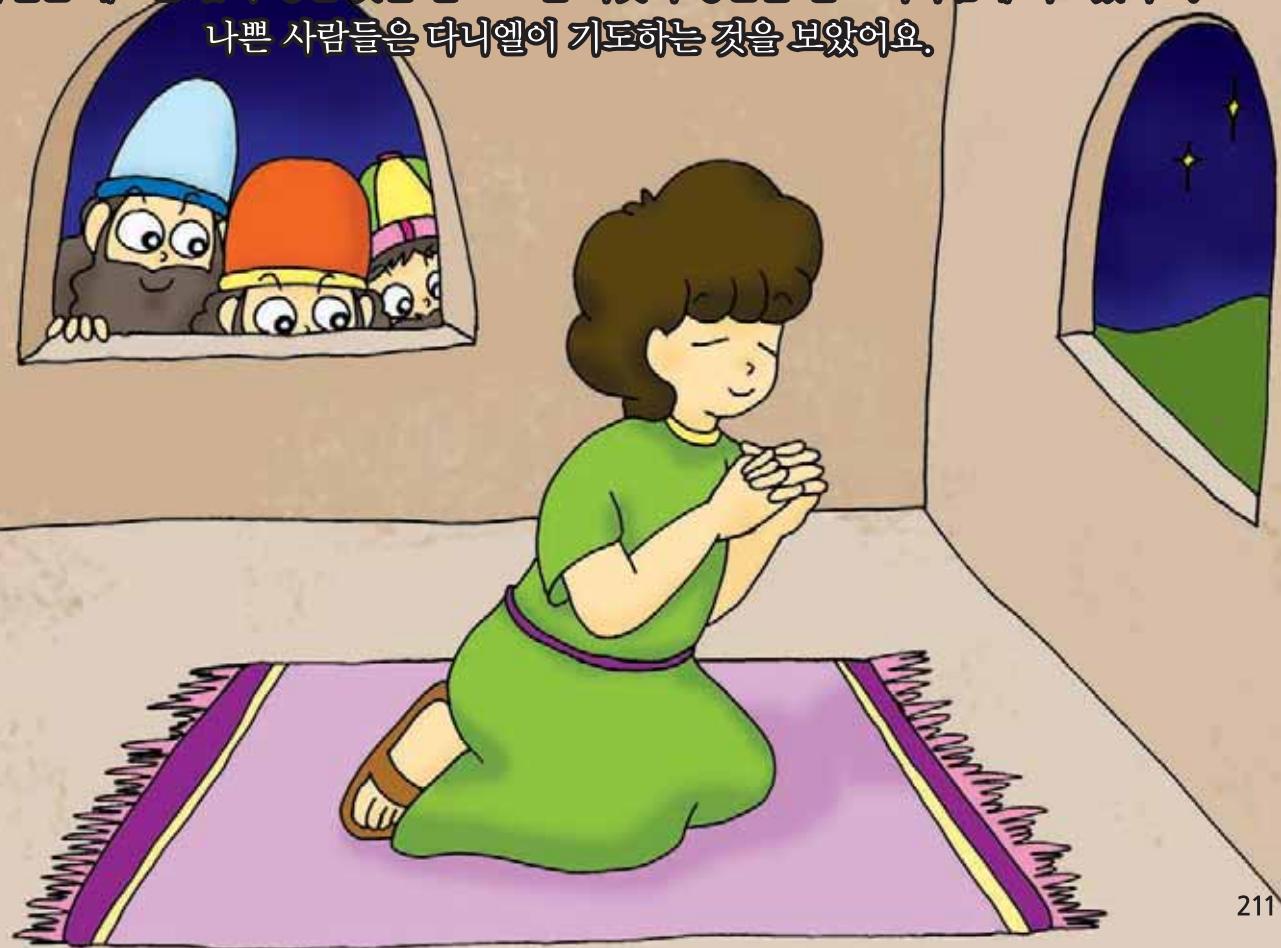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에게 나쁜 법을 만들게 했어요.

그 법은 이랬어요.

“누구든지 왕을 신으로 믿고 기도하고 절해야 한다.
만약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의 밥으로 준다.”



그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왕의 꿈을 알아맞히지 못해서 창피를 당했지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다니엘만 알아 맞혔다는 것을 알았지요.
다니엘은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을 알고도 늘 하듯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왕에게 말했어요.

왕은 괴로웠어요.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법이니까요.

왕은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붙잡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왕이 말했어요. “너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사람들이 큰 돌로 사자굴의 입구를 막았어요.





그날 밤, 왕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이 되자 왕은 급히 사자 굴에 가 보았어요.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느냐?” 왕은 걱정하는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어요.

“네.” 다니엘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를 지켜주셨어요.”



다리오왕은 너무 기뻤어요.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꺼내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어요.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왕은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혼내주고,
모든 백성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겨야 한다고 명령했어요.

35. 순종하기를 배운 요나

요나서 1~3장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보내셨어요.
파도가 높게 일어 배가 부서지게 되었어요.
요나는 그 폭풍우치는 배 안에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배 안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겁이 났어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중이라고 말했어요.

“나를 물에 던지세요.”

요나가 말했어요.

“그리면 하나님의 이 폭풍우를
멈추게 하실 거에요.”



사람들은 배를 바다에서 육지로 저어 가려고 애썼지만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거세질 뿐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 할 수 없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 그러자 바다가 금방 진잔해졌어요.
-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보내셨지요.
- “물고기야, 요나를 삼켜라!”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켰어요.
요나는 삼일 밤 낮을
그 물고기의 배속에 있었어요.
요나는 물고기 배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큰 물고기는 요나를 마른 땅 위에 뱉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전해주어라.”



이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일어나 니느웨로 갔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36. 올바른 헌금을 드려요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나쁜 것으로 대충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말라기를 통해 경고하셨어요.

“엉터리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올바른 헌금을 드리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쁜 사람은 벌을 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착한 사람은 새 힘을 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라고 말했어요.

